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지재운
주간 문정완
편집장
외대신문사(☎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515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5월 9일 (화요일)

본교 조기연군 실명위기

부상자 대책마련및 5·1집회 봉쇄규탄 총파업단행

파업기간 시위중 조기연·윤용배군등 학생1백여명 부상

서울캠퍼스는 「4·19혁명계승 실천대회」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조기연군(서양·영어2)의 대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이 연일 전행되었으며 용인캠퍼스도 4·19, 노동절계승 기간동안 총파업을 빌이며 연일 집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7면〉

서울캠퍼스

「4·19민중항쟁계승 및 광주학살·5공비리 민중운동탄압주범 노정권퇴진을 위한 애국외대 1차총궐기대회」가 지난 4월19일(수) 연수원앞광장에서 열려 각단대·과별 결의 및 향후일정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산하 투쟁본부 주최로 개최된 이날 집회에서 이 중형(사방·독교4)투쟁본부장은 총궐기선언문을 통해 「4·19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당면 해결과제인 광주·5공비리 진상규명투쟁을 확고히 하면서 노동형제와 공동연대로 노정권퇴진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교문에서 있은 실천대회중 조 기연(서양·영어2)군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안구가 파열, 실명위기에 처함에 따라 21일(금)부터 비상학대운영회의와 1·2차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6개단대 29개과 대표포함 총징족수61명중 37명이 참석한 비상학대운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법단체인 공안합수부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이번 조기연학우의 실명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노정권의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어, 각단대·과별로 발표된 실명대책방안으로 영어과는 일간지 대국민호소작업, 특임자의 공개사과·처벌을 제안하였고, 상경대는 모금운동과 편지쓰기운동 전개를 제시하였다.

한편, 28일(화)에는 1천여 학생들이 경희의료원에 입원중인 조군을 방문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평화행진보장을 요구 오후8시경 병원을 방문하여 꽃다발과 편지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용인캠퍼스

용인캠퍼스에서도 지난 4월19일(수)오후1시30분 해방광장에서 7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계승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애국외대구국궐기 대회」가 열렸으며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을 원철군(사회·경제3)은 「당시의 반독재 함성을 오늘의 자주·민주·통일 함성으로 폭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어 5월1일(월)부터 총학생회는 「세계 노동절 1백주년 기념및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애국학생 결의대회」와 이후 연3일동안 「민중생존권 탄압 분쇄 및 5공독재 부활음모 노태우 정권퇴단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기간동안 자연과학대의 노동절 총파업을 비롯 몇몇 과의 전공수업을 제외한 전과가 파업을 벌였고 연인원 1천여명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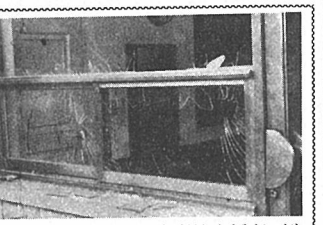
학생들은 2일(화)과 3일 「노정권 퇴진」집회후 학교 전임로에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 서양어문대 학생회장 윤 용배군(서반아어4)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화염병이 폭발, 미리에서 가슴까지 2도화상을 입고 현재 성남 인하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을 비롯 이틀동안 시위도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학생이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아리대표자 회의」개최

「동아리권익 추진특위」구성

용인캠퍼스 「동아리 정기 대표자 회의」가 지난 5월4일(목) 오후6시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동아리 연합회(이하동연)」원들과 30여개 동아리 태표자(총49개 동아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모의 평양축전, 「동아리 권익 추진위원회」(가칭)건설문제, 전대협 출범식및 성지순례 참가문제 등의 안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5월22일(월)부터 5월26일(금)까지 전개될 「모의평양축전」에 모든 분과 동아리가 활동내용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아리 복지해결에 관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학생들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각 동아리 장학금 확대지급, 동아리의 물품확보등을 관철시키기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정하고, 각 분과장 중심으로 「동아리 권익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난 5월3일(수) 용인캠퍼스 진입로 시위 도중 학내에 난입한 전경들이 소지한 각목·방패등으로 학교 교문수위실의 유리창과 내부기물들을 파손하였다.

요즘들어 현정권의 강경일변도 시국정책을 반영하듯 전경들의 진압방법도 점점 과격·폭력화(?), 무원칙하게 자행되고 있다.

시위도중 전경들이 던진 돌과 화염병에 부상당하는 일은 부지기수고 이제는 집회와 하등 상관이 없는 학교기물을 파괴하는등 무분별한 진압방법으로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글·사진 : 사진부〉

사회진출기구 「일사랑」발족

정·경원론반등 4개분과로 운영

서울캠퍼스 사회진출분과기구 「일사랑」발족식이 지난 5월4일(목) 오후6시 일사랑룸(학생회관 2층)에서 열려 개회사, 축사, 고사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희광회장(서양·영어4)은 발족취지문을 통해 「청년학도는 재학시절의 조직적 생활과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로 진출함에 있어 목적의식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복무해야 한다」며 「이에 「일사랑」은 학생들의 바른 사회진출을 도모하면서 시대적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라고 성격을 밝혔다.

지난 3월하순에 노동문제초청간담회를 개최했던 「일사랑」은 현재 영어강독반, 근대경제학원론반, 정치경제학원론반, 철학반등 4개의 소모임이 분과체계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복지위, 자판기·구판장등 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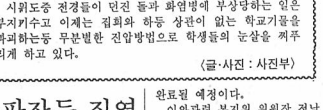
수익금은 복지시설 확충에 투자예정

지난 5월8일(월)부터 용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자판기 직영화를 시작으로 「학생 소비자 협동조합(이하 소협)」건립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자판기 직영화 이후에도 오는 5월15일(월) 인문·사회과학관 1층 휴게실에 개점될 매점과 같은날 교양학관 1층 휴게실에 설치될 화장품, 문구류, 일상생활용품등의 종합판매점인 구판장이 복지위로 직영화되며, 이상의 직영화를 통해 소협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인문·사회과학관, 교양학관의 휴게실 내부 시설공사가 이번주내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복지위 위원장 정남태군(서문·독어4)은 「학내 소비시설중 가능한 모든 부문을 직영화하여 복지위에서 제정운영, 판매, 구매를 하게될 것」이라며 「그수익금은 학내 소비자 복지를 위해 전액 재투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대사태 확대, 대탄압 예고
- 축소·은폐 실력 어디로

△백골단 6명 양심선언
- 빅골이 민망하여 도저히…

△뜨거웠던 4월 총결기
- 월신우월신(月新又月新)으로

「청년학생축전참가, 통일에 큰 도움」

용인「축전준비위」설문조사 결과 67.2%가 답변

66.8%, 연방제 통일방안 찬성

본교 용인캠퍼스 학생 67.2%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이하 청축)」에 남한 학생들이 참여했을 경우 「남북한의 통일에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20일(목) 구성된 「구국왕산평양축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근태 사회·무역3)가 4월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9개항의 「조국통일 설문조사」를 실시, 모두 1천부를 각과, 동아리연합회, 학회연합회등에 배포해 수거된 7백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64%가 「정부가 대화참가를 불허하더라도 꼭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 청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서로다른 체제를 인정한채 통일하자는 방안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50%,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유일한 통일방안이므로 적극 지지한다」에 16.8%가 답변, 66.8%가 연방제 통일안에 찬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문목사 방북에 대해서는 50%가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정부 통일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한반면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정부의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명분을 준 모험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에 42.7%가 답변,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있는 학생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교생 나원준·문희창군 구속

집시법과 폭력예비음모 혐의로

본교생 나원준(법·법학3) 문희창군(서양·독어2)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예비음모 혐의로 지난 19일(수), 28일(금) 각각 연행·구속되었다.

나군은 동대문에서 열린 「4·19혁명 계승집회」와 노태우처단을 위한 가두시위중 연행되었으며 문군은 지난 28일 가리봉동 가두시위에서 화염병을 운반하다 연행·구속되어, 5월9일(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권(?)

△「폭력과 불법행위가 민주주의와 나라의 장래를 위협한다면 비상한조치의 발동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3일 부산동의대 사건과 관련한 노태우 특별담화문의 일부분이다. 부산동의대 경찰관 참사사태는 학생들이 화염병을 들어야하고, 경찰이 학생들의 강경진압에 내몰려야하는 오늘의 현실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러한때, 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극렬학생들의 살인방화」로 매도하고는 앞으로 좌경폭력세력에 대해서는 「비상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히고 있다.

△현행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조치는 천재지변, 내우외환 또는 전시, 사변등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의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70년 대통령의 권한은 이러한 헌법상의 제약을 초월하기위해 「위수령」이라는, 이름 규제할 어떠한 상위법률도 없는 권한을 만들었다. 즉, 「대통령 마음대로권」이 생겨 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71년 고려대 시위진압 처벌을, 그리고 79년 부마사태당시 특전사 해방대의 파견진압이 「위수령」의 발동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않고있다. 그리고 오늘날 또다시 「비상조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그 위세가 당당하다.

△노정권의 「비상조치」검토 불사발표는 이제 그 발동여부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공안정국」은 비상조치를 방불케 하기에 충분하다. 공안사건의 처리와 좌경세력 배제조치가 안기부·검찰공안부·공안합동수사본부의 담당하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화염병제조·사용·소지에 대한 처벌법, 국가보안법철폐철회, 폭력데모시 총기사용 등 현 정부의 공안정국에 대한 지지여론조성, 법적·제도적뒷받침을 위해 최근 계속되어지고 있는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은 군인들의 폭력행위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어있지 않을뿐이지 바로 비상조치가 시작된것임에 분명하다.

△현 정권이 문목사 북한방문사건에 이어 동희대사건을 좌경세력척결의 '호기'로 생각하고 강공을 전개해 나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강공은 먼저 학생운동세력에대한 해체작업으로, 이는 최근의 대학총·학장회의에서의 학내시위용품신고명령과 대학내 간행물에 대한 사법처리방침등 벌써 본격화되어가고있다. 이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가장 가깝게 공권력으로 실명한 조기연 학생의 보상투쟁으로부터 멀쳐있어나 학원을 계속적으로 위협해오는 현 정권의 비상조치 강경 일변도에 「강경대치」해야 할 준비를 다져야 갈 것이다.

〈안미숙〉

외대학술상 논문을 모읍니다

올해에도 본보는 여러분의 연구와 노력이 담긴 학술원고가 우리 모든 외대학우들에게 소개될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본교에 재학중인 외대인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논문의 주제는 자유입니다.(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3개부문)

원고는 80매 내외로, 오는 7월22일(토)까지 저희 학생기자실로 제출해주십시오.(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전화 : 965-7048)

「제7회 외대학술상」에 여러분의 스스럼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심사위원및 상금은 추후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외대학보

학군사관후보생모집
(R.O.T.C)

○모집인원;00명
○지원자격
-89년도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68. 1. 1-'72. 3. 1 출생자(18세-22세 미만)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89. 4. 10-5. 31(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시	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진(4×5cm) …2매
·사진(4×5cm) …2매	

○선 발;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잠재역량
○합격자 발표; 90. 1. 10
○특 전
-무시험 전형
-장기 및 북부 연장자 동일 성적시 우선 선발
-소위 임관, 중위 전역 또는 북부연장, 장기복무
-의무 복무 기간; 2년3개월(장교중 최단기)
-지도력, 창의력, 책임감, 품성, 통솔, 행정, 경영능력 배양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 보도 실시 및 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취우
○문의처;학군단 본부(962-7124(일반), 965-7001-16(교환)2412)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19학생군사교육단장

수강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영어과(2개반)50명, 일본어과(2개반)50명
2. 교육일정
1)기 간:1989. 9. 4-1989. 11. 24(12주 교육)
2)교육시수:1일3시간(18:30-21:20)
3)주당일주:5일 (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시험과목:지망학과 외국어 필기시험
5. 제출서류:소정원서 및 사진1매
6. 원서교부·접수:1989. 5. 17(수)-1989. 5. 31(수)
7. 전 형 료:5,000원
8. 전형일시:1989. 6. 3(토) 14:00 외국어연수원
9. 합격자발표:1989. 6. 9(금)14:00 외국어연수원
10. 수 강 료:162,000원 (월 54,000원 상당)일시납
11. 등록기간:1989. 6. 9(금)-1989. 6. 17(토)외대구내우체국
12. 기 타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년 3회 실시함. 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라 모집학과의 조정이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연수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직통)962-7119, (교환)2174
1989년 5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89년도 전반기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아래와 같이 89년도 전반기 예비군 기본교육을 실시하니 대상자는 예비군 본부로부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것.

-아 래-

1. 일시:89년 5월29, 30, 31일 08:50-17:50
2. 장소:용인캠퍼스 강당 및 운동장
3. 집결장소 및 시간:08:50까지 강당
4. 대상: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 전원
5. 특장:예비군복 또는 현역군복(훈련장에서만 착복할 것)
6. 교육비대상자
ㄱ)89년도 전역한 예비군 전원
ㄴ)소집면제자 (미필 보충역) 전원
ㄷ)행정관리요원 (병및 일반하사:54년, 55년생)
ㄹ)1학기 복학, 재입학자중 지역에서 16시간이상 교육이수자
7. 주지사항
ㄱ)지연도착자, 복장위반자 귀가조치
ㄴ)당해훈련 불참자는 1.5배의 보충교육 실시
ㄷ)각 학과별 일정이 다르므로 개인별 소집 통지서를 참조할 것.
1989. 5. 1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예비군 대대장

안 내

1989학년도 전반기 서울캠퍼스 예비군 교육훈련을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운동장 공사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직후인 6월21일(수)부터26일(월)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6월 초순에 외대학보 및 교내 각 게시판에 공시할것임.

1989. 5.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 연대장

사설

대학언론 탄압책동을 규탄한다

—학내언론 사수투쟁에 떨쳐 일어서자

이시대 마지막 참언론으로 양심을 지켜온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6일(토) 문교부는 전국35개대학 총학장회의를 긴급소집해 『대학신문, 교지, 학회지및 학생회나 학생들이 임의로 발행하는 신문류등 대학간행물의 내용이 헌행법에 위반될 경우 사법처리를 요청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계 총학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대학간행물의 편집, 제작, 판매권등 일체를 오는 20일까지 학생들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했다 한다.

80년이후 대학언론은 선배기자들의 지난한 편집자율권 쟁취투쟁을 통해 상당부분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또 이러한 자율성은 축적되는 시대적 경험과 변혁이론의 발전을 거치면서 청년학생을 위시한 독자대중에게 올바르게 사회를 인식시키고 이땅 변혁의 주체로 서게하는 참언론 매체로서 그위치를 굳건히 해왔다.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은 87년6월항쟁 이후 조금 수그러들기는 하였으나 학교당국을 통한 간접탄압과, 작년 서울대, 부산여대 필자구속사건과 최근 국민대, 조선대등의 교지편집진에 대한 구속조치등에 이르는 직접적인 사법조치 역시 여전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각대학의 신문, 교지등 간행물은 총장이 발행인, 교수가 주간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학생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등 직접적인 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교부가 지시했듯이 모든 편집권과 발행인명의까지 학생에게 넘겨 주었을때 매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최종책임인 학생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좌경·용공』(?)학생이 제작하고 있는 현 대학언론자체를 소멸시키고 아카데미즘과 학교 홍보만을 수행하는 단순한 대학의 기관지나,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어용신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80년이후 연속적인 배포금지속에서 한줄의 건실이라도 때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요구했던 편집자율권은, 이제 학생기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미끼로 우리앞에 던져졌다.

이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피로써 지켜 온 대학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학생 모범세으로 투쟁해온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전면적 말살기도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교부의 조치가 본교에서도 발행인 등록변경신고등의 형태로 가시화된다면 이는 일반오친독자와 외대학보 34년역사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외대학보는 노태우정권의 이러한 반언론적 작태에 분노하며 어떠한 탄압에도 물러섬없이 참 민족자주 헌론, 외대학보를 끝까지 사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미니 칼럼

▲그리이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초의 암흑속, 온갖 야수에 대한 공포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인간들을 발견하게 된 프로메테우스는 절대권력자제우스신의 허락없이 당시 신들의 전유물이었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전해주었다. 이후 인간들은 추위와 야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양심적 행동에 대한 대가로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 먹히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 고통은 등장인물만 바뀐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 「불」을 공유했던 인간들이 명화히 지배와 피지배계급으로 분리된 이후, 프로메테우스가 온 인류의 삶을 위해 가져다 준 「불」은 생산수단, 각종 기득권으로 화하여 지배계급의 소유가 되었고 그 사실은 부르조아 국가내에서의 항거할 수 없는 권리(?)로 굳어져왔다. 즉 모든 생산수단을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빼앗긴 대다수의 민중들은 지배계급의 「권력보다는 의무를」 「자유보다는 책임을」강요하는 논리속에 자신들의 「분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불」의 공유

▲『사랑은 나누는 것, 복숭아를 나누고, 부채바람을 나누고, 집전물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무기수 신영복씨의 이러한 말처럼 「불」을 나눠가지려 했던 사람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찾게 해주려던 오늘의 프로메테우스들은 절대권력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채, 겨울이면 머리맡의 물그릇이 얼어터질 정도의 차디찬 감방안에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양심수」가 되어, 외세와 독재에 의해 정의의 심장을 쪼아먹히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에 대한 지고한 사랑과, 순결한 양심으로 「불」의 공유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죄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죄짓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은 부당하다. 반면 죄많은 자에 대한 형벌은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 진정 감옥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은, 양심수들에게 자유를 빼앗았던 오늘의 「신」들인 것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심장이 다시 회생하듯 참된 해방의 「불」이 이 사회를 밝힐때까지 「신」들의 법률을 깨고 「불」을 훔치려는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승자는 마침내 「프로메테우스」가 될 것이다.

(박)

'89 노동절투쟁의 평가및 전망

김 선 미
〈서울 노동운동 단체협의회 간사〉

독재정권과 자본가들의 전면적이고도 치밀한 탄압속에서 진행된 「제계노동절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주세력이 한마음으로 치루어졌던 투쟁인만큼 이제 올바르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명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89년 노동절투쟁에 부여되었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투쟁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Ⅰ. 89년 노동절투쟁의 의미

전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중간평가가 연기된 이후 계획적인 「5공부활」이 시도되고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맞게 되었던 노동절투쟁은 단순한 노동자들만의 기념행사일 수 없었다. 그것은 전체민족민주세력에게 가해지고 있는 전면적인 탄압에 대한 반격의 일보였으며 「5공부활」을 막아내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기로점이기도 하였다.

87년 6월항쟁이후 민중운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왔다. 또한 여소야대라는 정국속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5공비리척결은 전국민의 요구로서 제기되어졌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5공화국과 다를바 없는 현정권은 전진하는 민족민주운동에 철퇴를 가하고 전국민의 요구를 묵살시킬 기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이미 「민생치안」을 명계로 안강 공산금속 파업에 대한 불법적인 경찰투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문익환목사방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라는 극히 자의적인 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계의 탄압국면은 민주화운동과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을 이끌어온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검거와 합법적인 정치행위를 최도 첫째, 4·20 파업에 돌입한 「공동임투」의 열기를 극대화한다. 둘째, 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회(이하 마창노련)의 방위산업체등 공권력의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투쟁으로 힘을 모아 이를 분쇄하기 위한 연대투쟁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 셋째, 조합원 대중의 의지와 힘으로 잃어버린 노동절을 되찾으므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고 전국조직건설의 외식적, 물적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가 제기되고 있었다.

Ⅱ. 투쟁의 조직과 경과

노동절 투쟁은 단병호 전국투쟁본부장을 의장으로하여 각계, 각층의 대표 1천명으로 구성된 대회준비위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리고 이홍석 마창노련 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의 부서조직에 의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이 꾸려졌다. 투쟁은 4월20일~4월28일까지 강연회등 대중의 열기를 모으기위한 지역, 부분행사와 4월29일 연세대에서의 전야제, 4월30일 여의도 대집회와 평화행진, 5월1일 공장별조합원총회및 지역집회 계획으로 구체화되었고 4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국에 대회의원회가 선포되고 일정이 발표되었다.

이렇듯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고 진행된 노동절행사에 대해 정부는 「5월 총파업 위기설」「폭력난동예상」등 이데올로기 악선전을 강화하고 마침내 「원천봉쇄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현정권과 경찰의 탄압은 극으로 치달았다. 4월 29일 아침부터 연세대주변은 경찰로 완전봉쇄되었고 지방의 역시등 전국에서 3천여명의 학생 노동자들이 연행, 감금되었다.

그러나 정당한 행사요구에 물리력으로 맞선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민주시민들은 봉쇄를 뚫고 연세대에 5천여명이 집결, 오후7시 「노태우정권의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시발로 성대한 전야제를 갱취해내었다. 결의대회에서는 이석행 대회준비위원장대행(진주지역 민주노조연합 위원장)등 연사들의 연설과 민중의 인간성회복을 위한 투쟁을 사수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에도 30일 새벽까지 교내로 합류하는 노동자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참석자는 7천여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절대회기념 전국노동자 가요제및 옹변대회」의 열기는 한층 고조되어갔다. 특히 온몸으로 노동악법을 불사르며 6일째 가두진출투쟁을 벌이고 있던 마창노련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과 격려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 시간에 연세대로 들어오지 못한 상경 노동자들과 학생, 민주인사들은 서강대, 동국대, 한양대로 집결, 자체적으로 투쟁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만들어 내었다.

드디어 4월30일에는 연세대, 서강대, 동국대, 한양대, 인천의 부평역등 곳곳에서 장엄한 출정식이 치루어졌고, 「한국노동자대회」를 쟁취하기위한 투쟁의 불길은 솟아올랐다. 연세대와 서강대에서는 비처럼 쏟아지는 다연발탄속에서 5시간의 교문투쟁이 처절하게 지속되었다. 또한 여의도를 향한 발걸음은 가두에서 과감하게 폭력경찰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12시를 기해 아현동에서 시작된 노동자, 학생의 함성은 백골부대의 무자별구타, 연행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서울역, 남대문, 명동등으로 이어지면서 6시까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연세대의 봉쇄와 전원연행방침이 철회되고서야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경찰은 이날도 귀가, 학학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 3천여명을 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골부대에게 쇠파이프로 맞는등 부상자 1백여명이 속출하였고 허리를 다쳐 다시는 자리에서 못일어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전국노동법개정및 임금인상투쟁본부」와 학생들은 5시 연세대에서 개최된 「한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폭력탄압 규탄대회」에서 5월1일 노조임시총회와 동맹휴업등 강력한 규탄을 결의하였다. 또한 마창노련 노동자들의 구속자석방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지원하기위해 5월 4일 마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8시간노동제」를 외치며 만국노동자들의 불씨가 되었던 투쟁정신을 기리고 전국민의 민중운동에 대한 지지와 민주화열기를 보여주려던 여의도평화집회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곳곳에서 울려퍼졌던 「사천만이 단결하여 민중운동탄압 분쇄하자」의 구호와 최루탄폭력에 대한 항거는 평화집회보다도 더욱 결연한 전진을 선포한 것이었다.

▲사진은 지난 3월30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세계노동절100주년기념 한국 노동자대회 출정식」모습

Ⅲ. 노동절투쟁에 대한 평가와 전망

4·30대회에 대한 탄압은 현정권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을 거짓없이 드러내보였다. 현정권은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까지도 무시한채 명분과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한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는 언론에서 전개되었던 「빨갱이=좌경용공=재야=노동자생존권투쟁」의 도식에서도 나타나듯이 탄압의 주요대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운동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현대중공업, 마창노련등에서 보여지듯 독점재벌과 굳게 결탁하고 있는 독재정권으로서는 노동자, 농민등 민중들의 조직역량이 성장하는데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지지,파탄에 모든 힘을 쏟아놓고 있다. 특히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칭)」의 건설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단병호 전국투쟁본부장, 이홍석 마창노련 위원장등 노동자의 지도적 인사들을 계속 연행해 조직의 중심을 제거하고, 미전한 개정노동법조차 거부조치하는등의 일련의 사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의도가 5·1절 투쟁에 대한 폭압으로 확연히 폭로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억누름이 강화될수록 노동자들의 저항은 오히려 거센 분노와 함께 솟아오르고 있다. 사실 기존에도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봉쇄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뜻을 굽힐 수 밖에 없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조합원들은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투쟁장활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울산현대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동절투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정치적각성과 투쟁력의 향상에 기여한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하나 훌륭했던 것은 각계, 각층의 건일한 결합속에서 노동절투쟁을 치루어 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준비과정을 거쳐 노·학연합대를 조직, 투쟁의 선봉에 서고 학생대중이 대거 참여하는 「노·학연대 한마당」의 시간을 갖는등 노·학연대의 총화를 이루어냈다. 또한 재야단체들도 대부분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고 민주인사의 협조도 광범위하였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던 투쟁이기도 하였다. 우선 현대중공업투쟁에 대한 연대로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던 관계로 준비기간이 짧았고 따라서 각 부분, 지역에서 광범위한 대중을 추동할 수 있는 선전작업이 극히 미비하였다. 올해 새로 결성된 신규노조의 노동자들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소극적인 조합원들까지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압적인 상황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또한 연세대를 비롯하여 교내에서 계획된 행사가 봉쇄로 인하여 내용에 미비점이 발생했던 것과 노동자들이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들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이다.

Ⅳ.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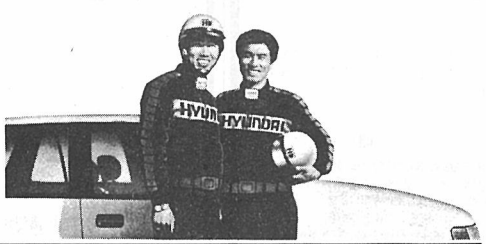
이제 총력을 다했던 노동절투쟁은 끈질긴 투쟁의 정신을 남기고 마무리되었다. 현정권의 노동자 생존권투쟁에 대한 탄압은 당분간 전면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5·1절을 기해 닦은 연대로써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해 진군해야 할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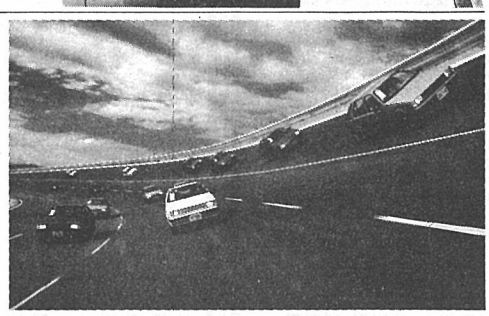
노동절투쟁은 전국적 노동자조직 건설의 기초

폭압적 탄압책동에 맞설 전민중적 연대절실

노동절 투쟁은 이후 5월투쟁과 결합하여 5공독재 부활음모를 분쇄하는 민주화 투쟁 재상승의 첫걸음

우리 손, 우리기술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든다 ②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200Km의 속도로
가장 안전한 차를 향한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속 200 km의 직업
시속 200km로 달리는 약1평의 자동차 실내공간 —
이것이 테스트 드라이버인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최종 성계를 거쳐 수작업으로 완성된 신모델의 성능(가속, 제동, 최고속도등)및 내구성(마모, 신뢰도등), 세계각국의 법규만족도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테스트를 통해 시험, 확인하는 일이 저의 주업 업무입니다. 주어진 시험기간내에 몇십만km의 목표거리와 성능확인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일주일내내 시속 200km로 프루빙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더 안전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더욱 경제적이고 성능좋은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노력입니다.

조국의 동남단에 펼쳐진 웅대한 포부
이러한 모든 테스트의 70~80%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만이 보유하고 있는 울산공장의 종합시험장입니다. 25만평 드넓은 대지위에 고속주회로(총연장 2.6km : 성능시험)를 비롯, 벨지안로(도로 가혹도가 일반도로의 200배로 3천km를 주행하면 보통여건에서 10년이상의 수명과 동일함), 더스트 터널(Dust Tunnel: 먼지유입시험)에 이르기까지 19종의 각종 테스트 코스를 갖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 메머드 종합시험장에서 세계속의 자동차 한국을 꿈꾸는 현대자동차의 웅대한 포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그날을 준비하며
현지적응 테스트를 위해 외국에 나갔을 때, 상상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리아를 모르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포니, 엑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자동차가 세계속에 한국을 심는 막중한 민간외교사절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제업무에 대한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실공히 한국인이 만든 한국맛 나는 차, 우리 손 우리 기술로 세계제일의 차를 만들게 되는 날 ——

저의 꿈이자 현대자동차의 신념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그날을 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도 싱그러운 봄바람을 가르며 시속 200km의 속도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테스트 드라이버 이천우

HD 現代自動車

변혁전통의계승과 조직건설투쟁 〈1〉

김 인 철
〈한국근현대사연구가〉

Ⅰ. 머리말

일제 강점하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투쟁경험은 그들만의 일회성 경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민중들이 전개한 투쟁은 오늘의 우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이 경험은 현단계에서의 투쟁을 보다 지혜롭고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북한사회 이해의 출발도 항일무장투쟁시기 민중들의 항쟁에 대한 이해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단순히 북한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닌, 민족의 지상과제라 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일제하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이하 조광)의 국내·외 조직현황과 당 및 대중조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서는 해방과 함께 북한지역에서 조광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이 당과 대중단체 건설(여기서는 「민주주의 청년동맹」 건설사례)의 경험까지 개괄해보고자 한다.

Ⅱ. 「조국광복회」의 조직상황과 당, 대중단체건설의 경험

1936년에 조직된 조광은 항일무장대오의 외곽정치조직이면서, 동시에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다. 조광은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의 무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서 장백현을 중심으로 「현대사자료」)에 따르면, 장백현의 경우 구회3개, 지회11개, 분조41개, 반10개, 생산유격대6개 (미조직2개)가 조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북한의 김을천은 자신의 연구에서 1936년 가을부터 1937년 2월사이에 장백현의 조광은 구위원회 3개, 구회3개, 지회18개, 분회108개외에 반제청년동맹·반일소년단·부녀해방동맹·아동단등이 조직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광은 한인민족해방동맹1개, 지회3개, 분조3개, 정우회1개, 반일그룹14개, 생산유격대2개, 그리고 갑산·삼수·풍산군의 친도교 세력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백현 및 갑산지방중심의 조광조직은 「제1, 2차 혜산사건」(1937.10~1938.10)으로 인해 조직이 파괴되었으며, 이후 재건에 실패하였다.

한편, 조광의 회원수에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제1, 2차 혜산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수가 2천여명이었고, 1930년대 후반이 일직인 조직체계에 결속하고 당조직 생활을 통하여 전투적으로 단련시킬것」을 제기하였다. 들째, 「임무」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노동자, 농민출신의 우수한 분자들을 혁명적 핵심으로 광범히 육성하여 당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세째, 「임무」는 종파주의와의 투쟁속에서 조직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실현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조직원들을 아래로부터 위로, 즉 상향식경로를 밟아가면서 당건설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건설경로는 러시아의 경험과 상이한 것으로, 오늘날 북한학계에서는 이를 주심에 놓고 부농까지 조직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당시 국내 「적색농민조합」의 부농에 대한 태도와 크게 대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급정책의 기조는 토지문제의 해결방식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토지몰수 대상이 지주계급인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와 친일지주에게만 국한되고, 몰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감조감식」에 의한 소작관계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반일에 동조하는 모든 애국역량을 결집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려는 조치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청년조직은 이전의 국내공산주의 운동에서처럼 공산주의 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반일청년동맹」(갑산군 보천면) 또는 「항일청년동맹」(갑산군 운흥면)으로 조직하였다. 그것은 무산청년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반일에 동조하는 광범한 청년대중을 비합법적으로 포용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속에서 단련된 성원들은 항일무장대오에 직접편입되거나 생산유격대로 조직되는 등 청년대중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일에 동조하는 대중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조직의 구성은 노동자·여성·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통한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은 해방이후 북한에서 인민정권의 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Ⅲ. 해방이후 당과 대중조직의 건설과정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민족사에 얽혀난 질곡으로 작용한 분단을 선물하였다. 그것은 민중들에게 내일을 향한 힘찬전진의 계기였으면서도, 동시에 남북간의 불균등한 정세에 따른 운동의 상이한 전개과정을 초래하였다.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업

이와같은 불균등한 정세하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설치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1945년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북조선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는 북조선의 유리한 정세를 이용한 전반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조직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하 「분국」)

당시 대회가 채택한 분국 조직문제는 쉽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다. 해방이되자 저하에 분국은 당원구성에서 노동자의 비중을 높이며, 공장기업소내에 당 세포조직의 확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분국에서는 당중수여를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당내의 친일분자, 기회주의자들의 배격과 당 대열의 체계적 강화를 결정하였다. 이 당중수여사업은 단순한 「기술적 사업」이 아니라 「당 대열을 강화하는 사업」이었으며,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당 대열로부터 숙청하는 방법」이었다. 이외에도 분국은 기관지 「정로」의 발행을 강화하고, 학교 및 강습소의 설치를 통한 간부양성사업을 전개할 것을 조직체계의 정비와 강화의 일환으로 결정하였다.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이후 시·군·면단위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이루어가던 분국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성립을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즉 당의 지도 아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시한 토지개혁등의 제반 민주개혁을 통해 당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결집시켰고 노동자·농민층에서 다수의 당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45년 12월4천5백30명이었던 당원이 1946년 8월에 1만2천여개의 세포와 27만8천여명의 당원을 포용하는 조직으로 성장·강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국은 1946년 8월에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을 조직하고, 더욱 대중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때에도 분국내에는 합당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신민당과 합치느냐」, 「합당은 공산당을 신민당화·소자산계급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합당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제반 민주 개혁의 실시는 노동자·농민·근로인텔리들의 경제적기초를 일치시켰고, 그들의 동맹을 강화시켰다. 동시에 신민당의 기본과업과 공산당의 최소강령이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조건과 함께 당시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운동발전의 전망, 즉 제반민주개혁 성과의 보존·강화, 당의 대중성 강화, 북한에서의 강력한 민주기지의 건설을 통한 전체운동의 강화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합당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합당의 결과, 1946년 8월 현재 북로당은 36만 6천여명이 당원을 포용하고 있었지만, 1948년 1월일 현재 75만여명의 당원을 포용하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190.3%의 성장이었다.

해방이후 북한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공청」이외에도 「기독교청년동맹」, 「백의청년동맹」등의 청년조직들이 수부족순차럼 분산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세는 불균등한 정세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고립시키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한 운동역량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었다. 청년 대중들의 조직도 이와같은 객관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직될 필요가 있었다. 즉, 「어린 계층의 청년여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새 조선 건설을 열망하는 청년」들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 봉사할수 있게하는 조직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해방이 되자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청년 단체들은 「공청」이었다. 일제시대 국내 공산주의 청년단체들 만이 가입할수 있는 조직이었으며, 해방 이후의 「공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결과 「공청」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동의하는 광범한 청년대중을 포용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공청」의 해소와 「민청」의 건설을 통한 광범한 청년대중의 결집문제가 제기되자 온갖 좌우경적 견해들이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민청」은 「청년의 통일전선을 거부하고 각종 청년운동을 고립상태에 방임하며 공청단체의 해소를 반대」하는 좌경 기회주의적인 견해를 물리치면서 조직되었다. 「민청」은 1945년 11월하순에 발생한 신의주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조직되기 시작하여 1946년 1월 17일에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결성당시 약 50만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던 「민청」은 1948년에 전체 청년 대중의 73.8%를 2만4천2백12개의 초급단체에 망라하고 있었다.

민족통일전선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전개된 「민청」,조직 건설은 직업동맹·농민동맹·민주여성동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를들어 「농민동맹」(농민조합)은 전국적, 또는 북조선 차원의 조직건설을 위해, 3·7제 투쟁을 중심축으로 광범한 농민대중에 기초하여, 전국적 또는 북조선 차원의 조직건설을 반대하는 견해를 물리치고 합차게 전행되었던 것이다. 1948년 현재 「북조선 농민동맹」은 2백57만명의 농민 대중을 산하에 포용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 조직은 빈농중심의 조직이었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이제 이상의 개괄적인 서술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광을 중심으로한 항일무장 투쟁시기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경험은 해방이후 인민정권건설을 위한 광범한 대중적 토대의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조광의 활동은 인민정권의 대중적 기반을 축성하는 과정에서 온갖 좌우경적 견해들을 극복해나가면서 운동대오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올바른 방침아래 견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철과정은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갑산파 계열의 권력장악으로 이어져 갔다. 요컨데, 갑산파는 해방직후 김일성, 최용건, 안길, 김일, 박금철등의 몇몇의 임원만이 중앙의 핵심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지방의 당 또는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군대에서 활약하였다. 예를들어 이제순은 1946년에 북조선 노동당 길주군 위원회 위원장, 1947년 북조선 노동당 함북도당위원장등을 역임했고, 최광은 1948년에 가서야 인민군 제1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갑산파는 해방이후 인민정권의 건설 과정에서 지난 시기의 경험에 입각하여 창조적으로 자기 방침을 관철시키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넓혀 나갔던 것이다.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승리의 핵심은 누가 어떤조직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조직문제에 있어서의 주요한 관건은 역사적관점에 입각한 변혁전통의 올바른 계승과 과학적 사상·이론의 뒷받침 여부일 것이다.

지난 514호에 게재된 「변혁운동의 전통과 조직문제에 관한 일고찰」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본보에 독자들의 많은 논의와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본보 학술부에서는 유실되고 왜곡된 민족해방사의 재건과 변혁전통의 현재적 계승에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본 기획시리즈를 계획하였다.

독자여러분의 계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다린다.

〈학술부〉

글싣는 차례

1. 반일투쟁기의 대중조직사업
2. 해방이후 조직사업과 대중노선
3. 공안사건을 통해본 조직건설 사례연구
4. 80년대 전국적 전위조직건설논의와 실체적규명

조국광복회의 대중조직과 당건설사업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세워진「조국광복회」의 민족통일전선 경험은 이후 당건설 사업의 토대로 이행

혁명의 실천 투쟁속에서 단련된 핵심인자로 당조직의 골간을 세워

라는 시대적상황을 고려했을때, 이것으로도 조광은 대단히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하에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조광이 다양한 위상과 특성에 맞는 조직과 활동을 통해서 대중을 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혁명의 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의 지도이념

조광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은 이전에도 당 건설을 위한 준비를 전개하고 있었지만, 조광을 조직한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들의 전해를 가장 명확히 들어내는 것이 「서광」에 발표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1937)이다. (이하 「임무」)

「임무」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4가지 당면임무가운데 하나인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적극투쟁」할 것을 제기하고 이는 「공고한 조직사상적 기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준비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는 무장대오와 혁명적 대중단체에서 「당을 통체적이고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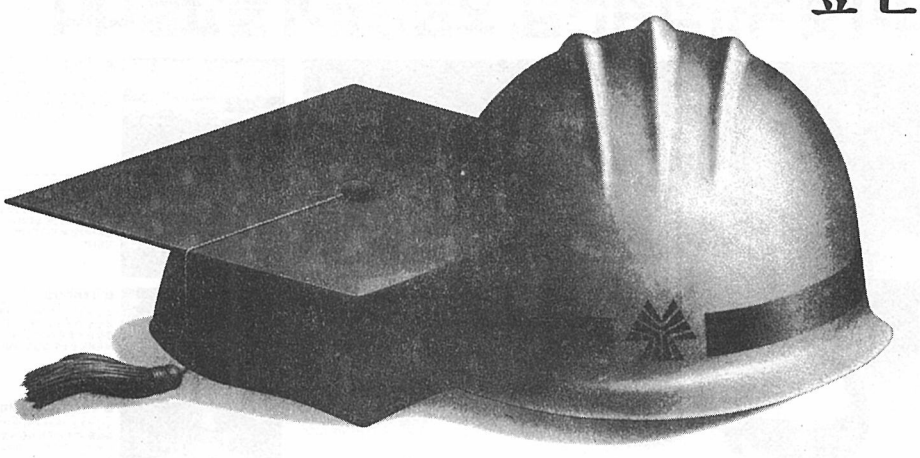
당시 조광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은 당건설의 기간요원들을 무장대오와 조광등의 혁명적대중단체속에 편성하고 있었다. 무장조직에서는 「정치주임(군)-정치위원(사·단)-정치영도자(연)」를 중심으로 당조직을 형성하였고, 조광의 경우는 「소조-지부-구위원회-현위원회」의 조직체계로 짜여져 있었다. 1936년 11월부터 1937년 7월사이에 장백현에서는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장백현공작위원회(1937.2)산하에 2개의 특별지부와 5개의 지부를 조직하였다. 국내의 경우, 조광은 국내의 많은 정치공작원을 파견하여 「당조직준비공작의 일환으로서 갑계급을 망라시킨 반일통일인민전선의 결성」을 통한 토대구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반일민족해방동맹이 결성되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당조직실체가 확실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조국광복회의 혁명적 대중단체 조직사업

항일무장투쟁시기 대중조직의 형태는 계급계층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적인 대중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계급계층별 대중조직에는 노동자, 농민의 계급별 조직과 성별, 연령별 조직으로 나눌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농민조직과 청년조직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자.

조광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그것은 장백현의 경우를 보면 알수있다. 장백현 전체 77개의 분회, 또는 하부조직중 72개가 모두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조직구성원상의 특징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형편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대중은 농민위원회, 또는 농민조합등에 망라되어 있었다. (갑산군 운흥면의 경우 농민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 조직에서는 빈농을 중

높은 꿈을 가지세요



浩然之氣를 키우며
무한한 미래를 준비해 온 내일의 주역들—
이러한 인재를 아끼고 키우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가져야 할 커다란 책임입니다.

부단히 연구하고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보다 큰 세계를 향한 도전에는
패기와 진취적인 기상으로 충만한
젊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젊음이 마음껏 일하며
높은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이룩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삼 양 사

- 纖維部門 : 폴리에스텔SF, 폴리에스텔FIL, 絹紡糸
- 食品部門 : 雲糖, 밀가루, 澱粉糖, 솔비톨, 水産物, 配合飼料
- 化学部門 : 이온交換樹脂, TPA, 각종엔지니어링플라스틱, PET-BOTTLE
- 機械部門 : 鑄物, ROLL, POWER PRESS, 産業機械, 製紙機械

폭등하는 집값, 서민들은 어디로가나

조 현 연
〈대학원정외과 박사과정1학기〉

Ⅰ. 머리말

요즈음 토지 및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신문지상이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채권매입액 1억원 돌파를 비롯한 아파트파동, 주택 2백만채 건설계획, 부동산 종합대책,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가능성 시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개발원의 전국인간소유토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87년 한해동안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된 자본이득은 34조 8천억원으로 이는 87년 정부예산의 205%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본이득 총액가운데 58.7%(20조4천억원)가 토지소유자중 상위 5%(54만명)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쉽게 말해서 54만명의 대토지소유자가 1년동안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돈이 1천만 노동자가 1년간 땀흘려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41조 1천억원)의 절반이나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토지소유의 편중현상과 지가상승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최고의 재산증식수단이 되는한 이같은 소유편중현상이나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분배정책

최근 전국의 지가동향을 살펴보면 온나라가 투기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투기의 근본원인이 엄청난 불로소득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가수요를 유발→토지공급 부족→가격상승→토지소유 편중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파트파동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이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믿고 있는 수요자들의 불안심리와 가수요, 투기업자의 투기조장이 주요원인이며,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포와 규제 일변도의 졸속정책과 관료적 편의주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토지·주택문제에 당면하여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은 토지 공(公)개념 도입확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마다 수없이 되풀이해 온 사후 약방문식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4·27일 발표한 신도시건설계획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가격의 폭등세와 이로 인한 집값는 소외계층의 누계된 불만이 체제자체와 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세력으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해진 고육책이라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수도권 팽창억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신도시건설에 착수한다는 것은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정부시책이 의도되어진 바대로 과연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남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민중이 훨씬 더 많고 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상위 5%가 아닌 나머지 95%를 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토지 및 주택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올바르다면 과연 정부가 상위 5%의 이익에 거스르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라는 이유등을 들어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라나의 토지문제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만 중시하고 사회정책적 측면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 해도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 수익에 대한 조세처분 수용 등 이런 형태로든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복지가 사유권에 우선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버리고 가진 자에 대항해서 전정으로 민중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힘을 지니고 있다면,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기존의 토지과다보유세(대물과세)제도,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 등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을 통한 토지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기업의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은행여신의 부동산담보 지양, 집인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민중을 위한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노동대중이 자신들의 생존과 종족의 번식을 위하여 전적으로 임금에만 매달리는 사회, 폭력적이고 정규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적 파동이 한편으로는 거대한 실업노동자 예비군의 생존을 좌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대중을 시시때때로 거리로 내쫓아 버리는 사회,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대도시에 몰려드는 것이 그들을 위한 주택들이 생겨나는 것에 비해 빠른 것이 지배적 조건인 사회, 그리하여 최악의 환경에서도 항상 예입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주택부족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오늘날 현존하는 국가(→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가란 소유계급들, 토지소유주 및 자본가나 피착취계급들, 농민과 노동자들에 대항해서 조직된 집단적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국가 역시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계속 존속하는 한에서는 주택문제나 노동자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회문제도 단지 그것만을 떼어내어 해결하겠다고 희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에, 그 구조 및 행방에 대한 불만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권은 정부와 민중 양자에게 공정히 존재하며 두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다. 결국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운계해결의 방향피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대해서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철거이주정착사업, 시민아파트건립사업, 양성화사업, 현지개량사업 등을 거쳐 현불량지구재개발사업에 이르는 도시빈민촌에 대한 일련의 재개발사업을 검토해 본다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도시빈민의 생존기반의 파괴를 수반하면서까지도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복지니 선전이니 하는 구호가 허구화될 수 밖에 없는 반민중적 경제정책 및 정부 무능력의 적나라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도시빈민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주체인 시당국·재벌·건설업체·대부기업자등 가진 자들의 극대이윤을 보장해 줄 뿐이다. 현재와 같이 재개발정책이 도시빈민들의 이해에 기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부동산투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왜곡된 분배리고 노동계급에 의한 모든 생존수단 및 노동용구의 전유에 있다는 것이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두가지 차별적인 문제해결의 시각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정부가 계급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문제들은 살못된 정책과 의지의 부족에 불과한 것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시각과, 정부는 단지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다른 시각이 현실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립하여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시각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철거이주정착사업, 시민아파트건립사업, 양성화사업, 현지개량사업 등을 거쳐 현불량지구재개발사업에 이르는 도시빈민촌에 대한 일련의 재개발사업을 검토해 본다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도시빈민의 생존기반의 파괴를 수반하면서까지도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복지니 선전이니 하는 구호가 허구화될 수 밖에 없는 반민중적 경제정책 및 정부무능력의 적나라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도시빈민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주체인 시당국·재벌·건설업체·대부기업자등 가진 자들의 극대이윤을 보장해 줄 뿐이다. 현재와 같이 재개발정책이 도시빈민들의 이해에 기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부동산투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왜곡된 분배

스즉중층이고 임기응변적 토지정책은 부동산 투기만을 부채질한다.

소유편중현상과 지가상승이 빈부격차의 심화요인

부동산투기억제의 실질적인 법적·제도적장치 마련돼야

외대만평

무조건 돌격!

강냉이와뒤바뀐 민족의 자존심

강 병 준
〈본보 취재부장〉

미군이 있으면/삼팔선이 든든하지요/삼팔선이 든든하면/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풍자적으로 은유한 김남주시인의 (쓰다만 시)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에게 미국은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존재해 왔다. 굳이 해마다 일간지등에서 대서특필된 「한국인은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과 주변환경 곳곳에서 쉽게 미국의 색채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의식속에 미국은 자의건 타의건 친숙한 국가로 위치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친미성향은 최근 몇년간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 × ×

올해도 별탈없이(?)지나가고 있지만 미국인 4·19혁명기념일이었다.

4·19당시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4월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쓸쓸한 유배지 수유리를 떠올리게 된다. 이날 수유리에서는 4월영령의 참다운 후예들이 쓰디 쓴 소주를 따라 부으며 슬픔과 분노를 목이 아프게 삼켰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4월 하늘을 보기에 부끄러운 이들이 호사한 승용차를 타고 올해도 변함없이 어울리지 않는 화환을 놓고 기념사라고 몇마디 늘어 놓은 후 유유히 빠져 나갔을 것이다.

4월의 피묻은 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그 불청객의 화환은 29년 전에 고귀한(?) 분들에 의해 갈몫 바쳐진 그 꽃다발을 연상케 한다.

당시 4월혁명을 이끌었던 60년대의 세대들은 미국인 백아더 동상에 커다란 화환을 걸어주었다고 한다. 아마 주한미대사가 경무대를 방문, 이제는 쓸모도 없어진 독재자 이승만에게 사임하라고 다그쳐준데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이렇듯 그 이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은인으로 인식되어졌던 미국은 6·25를 겪은 전쟁세대에겐 늘 구원자였고 반독재의 선봉이었던 4·19세대에게 조차도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 6·25전쟁세대 4·19세대의 아들, 딸들은 성조기와 주한미대사의 허수아비를 불사르고 미문화원, 대사관을 점거하며 공공연하게 『미제국주의를 축출하자』고 외치고 있다.

전세대가 미국을 상징하는 모든 존재에게 축복과 보답의 꽃다발을 전했던 대신 이들은 저주의 불길과 분노의 함성을 내지르고 있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과연 미국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감사의 꽃다발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진정 자주독립국가인가?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미국과 우리 민족의 첫 인연은 백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불법으로 잉토를 침범, 교역을 강요하면서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왔고 격분한 우리네 조상들은 배를 불태우고 신원을 물살시켰다. 이것이 바로 「월해우방관계」라는 한미관계를 맺게된 출발점이며 불평등한 「한미수호조약」을 체결한 근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919년 우리 삼천만 겨레가 독립을 외치며 한몸으로 일어섰을때 민족자결주의와 약소민족옹호를 떠 벌이던 미국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3·1운동결과 탄생된 상해임시정부를 탄압하였다. 6·25참전도 마찬가지다.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민족의 내전에 개입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져다준 해방이고 민주주의다.

아직도 4만의 미군이 1천여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으며 언제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 60만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다.

자유당독재부터 유신독재를 거쳐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독재정권을 한결같이 지지, 성원해 준 미국이 아직도 「우리의 은인」이고 「한국민의 우방」인지 묻고 싶다.

× × ×

조금 있으면 80년 괴로써 몰들였던 빛고을, 9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의 분수령으로 기억되는 광주민중항쟁일이다.

그 당시 한소년이 죽음으로써 얻은 『정권되에는 미국이 있었다』라는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원혼들의 함성과 통곡이 아직도 쟁쟁한 망월동산비탈, 전달래 꽃넋들이 잠들어 있는 수유리 묘역의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몇푼의 달러에 민족혼을 팔아먹고 조국강토의 순결을 짓밟는 행위는 그만 두어야 한다. 더 늦기전에 원조라는 미명아래 강냉이, 꿀꿀이죽과 뒤바꾼 민족의 자존심,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

김남주시인의 〈다진 시〉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가슴속에서 저려오는 시기이다.

미군이 없으면/삼팔선이 터지나요/삼팔선이 터지면/대창에 찔린 깨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경찰의 참사이유

기자의 눈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부터 KBS에서는 1시간 30여분에 걸쳐 당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있었던 「순국 경찰관 영결식」실황을 녹화 방송하였다.

한편, MBC도 당일 예정된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까지 계획에 없던 영결식실황을 방영하였다.

이날, 영결식 방송에 대해 MBC노조는 『이번 영결식 실황중계는 사전의 협의없이 사정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동의대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강력한 공권력 사용을 공공연히 떠드는 한편, 관계언론을 사주하면서 이데올로기공세를통해서 까지 탄압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날 강영훈 국무총리는 『학원가 폭력집단에 의해 순국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다한 6명의 경찰관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여·야와 기업·계층을 초월해 온 국민의 책임이며 이에 도전하는 모든 좌경폭력세력을 단호히 엄단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탄압을 예고했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은 문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설치한 공안합수부를 이번 사건을 호기로 하여 더욱 강화하여 전민련등 제야단체에 대한 구속수사확대와 제2의 언론통폐합시도라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의 탄압, 그리고 학원 내부까지도 공권력을 투입시켜 학원의 자주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 6공화국 출범초부터 미약했던 국민적 지지기반을 만회하고 확대하기위해 시위학생과 노조 근로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경찰을 대립시켜 식민지조국에서 같은 젊은이로서 전경과 학생을 이간시키고 있다 그러나 참사 이후 빈소에서 유가족의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라는 오열에 찬 호느낌에서, 지난8일 양심찬을 하고 공안 합수부해체를 요구한 6명의 경찰들 모습에서 독재정권의 자기모순은 여실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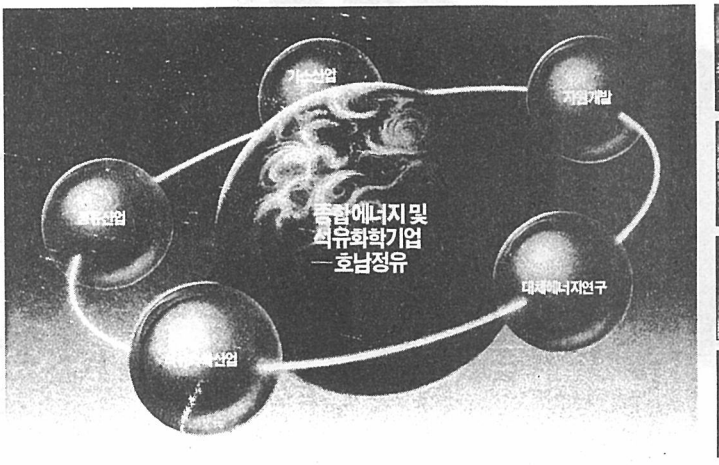
이제 더이상 식민지 조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야할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진짜 폭력은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이나 최루탄을 쏘는 전경이 아니다.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라는 미명아래 학생과 전경을 적대적 관계로 유도하고 그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적인 학생들의 자기방어적 수단을 폭력으로 매도하여 5공화국 탄압책동을 부활시키는 노태우 독재정권을 적시해야 할것이다.

(추인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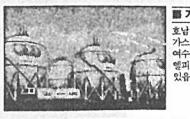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가 맡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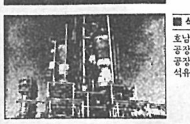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해
국내 석유공급체계의 순수 민간판매시대를
개막한 호남정유—
이제 호남정유는 20여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석유화학,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을 목표로
힘찬 항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도전과 의지로써 이룩하려는 호남정유의
미래상—
호남정유는 도전으로 미래를 성취해려는
·내일의 기업입니다.



■ 정유산업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온 호남정유는 일일 38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입니다.



■ 가스산업
호남정유는 무공해연료인 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해 1984년 여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엘피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읍니다.



■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는 이미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BTX 공장을 비롯한 최신의 각종 석유화학공장도 설립할 것입니다.

■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호남정유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

비판적 고찰 현단계 논리실증주의

이 화 택
〈서양·독어4〉

이 책은 현대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광범할만한 방법론적 원리를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적·실증적·변증적방법에 의해 사회조사방법론의 지평을 확대시킨 근래 보기드문 「방법론」에 관한 책으로, 현단계 논리실증주의의 현주소를 알기위해서 한번쯤은 읽어봄직하다.

먼저 이글은 성격상 서평이라기보다는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본 논리실증주의의 방법론에 대해 「비교정치연구」라는 이 책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한다는 것을 저자와 독자에게 밝히고자 한다.

이책에서는, 「실증주의사회과학」의 기초를 서술하는 바 「실증주의사회과학」이 갖는, 또한 「실증주의사회과학 방법론」이 갖는 필연적 한계를 지적하고, 존재에 대한 불가지성, 연구대상에 대한 흡적 주관적경험론과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적차이 무시, 더나아가 실증사회과학의 목적이 현상의 실존양상을 「있는그대로」 왜곡없이 파악하는데 환정된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물가치적」 태도라는 막스베버적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서론 2·실증주의 사회과학의 기초 중에서 인용)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의 기초와 한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구조주의-실증주의적 입장간의 날카로운 대립은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며, 양자는 정치사회현상이라는 하나의 총체적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의 편린들을 제각기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철학적, 계급적 대립을 화해할 수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것은 곧 논리실증주의가 가진 계급적 기초, 철학적 경향, 나아가 그들의 업적(?)을 고찰함으로써 구조주의와 실증주의가 과연 화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대적 대립을 통해 지양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명백해질 것이다.

먼저 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면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같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연구의 불가(不可)성을 언명하고, 오직 현상에 대한 정당화된 실증성만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현상해석에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본질의 추구는 고사하고, 오히려 존재자체로부터 파생한, 외화(外化)된 현상만의 연구를 고집함으로써 연구대상과 연구자사이의 끊임없는 소외를 야기하는 바, 이러한 태도는 일찌기 막스베버가 말한 「몰가치적」 태도를 고수함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다. 즉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일체의 편견·가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학문하는 자세의 전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정치적 현상에 대한 변혁이나 개혁은 있을 수 없으며, 역사변동의 보다큰 쟁점들을 제쳐놓고 점차로 미시적문제에 집착하려는 경향을-이것은 「비교정치연구」에서 기존의 비교분석작업은 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이 가진 체계속성반으로는 해석·설명이 너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때문에, 최대상이체계분석디자인의 효능을(이책P51) 제시함으로써-드러내고 있는것이 요즈음의 실정이다.

한편 인식론상의 경험주의는 주체와 객체를 엄연히 구분하여, 순수실증주의적 현상이외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흡적, 선칸트주의적 관념성변(?)해주고 있으나,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은 심층현실을 알려주는 물질적인 「세계의 총체성」이해와는 동떨어진, 더욱더 쾌쇄된 부분법칙들의 체계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반총체성(anti-holistic)경향=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당연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실증주의의 파탄신고처럼 들리는 바, 비인간화된 사회관계로의 환원, 즉 기술관료지배의 합리화과정을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의 모순이 이론내의 한계로만 나타나게 함으로 인해 사변적으로써 사회적 재생산과정에 일조하는데, 이는 주어진 사회체계가 유지되는 기반인 노동조직과 노동분업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증과학일반및 그것의 연구자는 현존사회관계를 유지하는데 단순한 개별적 노예화를 매우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이책의 결론 부분에서도 토로하는 바 「비교분석은 복합적인 인간형태의 생성과정을 마치 시계의 움직임처럼 규칙적인 것인양 기법적으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교분석의 과정상의 문제는 훨신 심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필수록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은 저자또한 여러곳에서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가설구성변인에 있어서 인과모형인명상의 문제(인과사실의 자의적(?)확정)와 등가지표 구축상 개념의 내포성상실의 문제, 가설검증방법과 기법의 한계등이 그것이다.

이제 논리실증주의의 계급적 기초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이들의 계급적기초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상부구조적 측면 즉, 학문적·철학적 측면을 대변해주는 기술관료-이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잉여가치의 우회적 획득」과정(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일반의 유통과정속에서 기생하는 쁘띠부르조아이다-인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계급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학자들은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진정한 합리적 사회조직을 부정하는 사회관계 구조의 상징인 권위체계에 봉사한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초대회장을 지낸 호르크하이머는 기술적·조작적·합리성의 승리에 실질적인 사례(과시증)를 부여하면서 부르조아 실증과학의 합리론을 권위적 퍼스낼리티및 과시증과 동일시했다. 결국 자연과학및 경험론적 인식론과 같은 형태로 베버가 말했듯이 세계의 각성을 목표로 추구한 결과로인해 실증과학및 논리실증주의가 지배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존재되었다.

특히 현대의 실증과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통과 억압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니는 학문적 한계, 즉 정치·사회현상에 있어서 수많은 노동하는 인간과 억압·착취하는 인간류에 대해 시험관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설명하려는하데에 있고, 이들이 더 나아간다면 컴퓨터(?)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정치·사회과학이 지니는 존재구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제반정치사회현상의 연구·해석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조적변혁에 있다는 것, 이것은 곧 인간의 총체적 활동의 한영역인 학문활동에서도 여지없이 관철되어야만 하는 대명제이며, 이것의 수용여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역사사회적 문제이다.

방법론 연구의 새로운 접근

비교정치학 연구의 방법론 논의

『비교 정치 연구』

저자 : 김웅진(본교 정책과학대학 조교수)

「서울 : 탐구당, 1989」

비교분석은 정치사회 현상의 인과적 생성원리를 도출해내는 분석방법으로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연구가 된다.

적으로 소개하는 저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비교정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어떻게 비교하는가」라는 문제를 치열하게 방법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저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정치론의 핵심인 「어떻게 비교하는가」와 「비교되는 것들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촛점을 맞추고 기본적인 비교분석의 논리를 정연하게 소개하고 방법론적 문제진단을 시도한 저서를 대할수 있게 되었다.

저자인 김웅진 교수는 「비교분석의 제조명 : 공간 통계양식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1호, 1986)과 「회귀분석 신드롬 : 한국정치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법적 진단」(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방법론적 논의가 비교적 소홀히 되었던 정치학계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바 있다.

특히 정치학도들 간에 특정 분석디자인이나 기법의 과도한 신뢰에서 빚어지는 오류를 견제하고 정치사회 편명제나 일반이론의 적용범주와 설명능력을 제점검함으로서 이론을 세련화하는 사회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방법이라고 정리한다.

또한 구체적 비교분석의 유형을 공간적, 시간적 통계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바, 공간적 통계유형인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와 최대상이체계분석디자인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저자의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결과이다. 최대유사체계디자인은 사회문화적 배경변수 공유가 가설 상립의 조건인바 체계유사성은 불변조건으로 통제되고 상이성은 설명변수로 간주한다. 유사성이 중대되면, 상이성이 감소하여 간명한 설명변수를 통하여 간명한 인과법칙의 도출을 기대할수 있어 주로 지역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최대상이체계디자인은 체계변수영향력을 무시하는 가운데 분석대상을 하위차원의 조직이나 집단에 맞추어 가설을 부작위로 검증해가면서 체계변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편법칙의 도출을 기도한다. 이점에서 최대유사체계디자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는 동질적 체계를 연구하는 단일체계연구방법인 지역연구를 논하고 있다. 비교분석의 단위와 수준에 관한 논의에서 지오바니사토리의 추상화의 사다리를 통해, 개념의 내포와 외연의 문제, 적정분석단위의 모색, 동가성의 확보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지 정치학도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비교연구를 행할에 있어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연구의 촛점이 명백해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분석전략과 비교분석의 수준 및 단위가 선택된 기초적인 방법론적 요건이 충족된 뒤에 가설 정립을 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 논리가 소개되고 있다. 가설이 정립된 후 이는 측정과 검증의 단계로 진입하는데 이와 관련된 주의해야할 문제와 기법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와같이 비교정치학의 가장 중대한, 그러나 간과되어온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면 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일반이론을 목표로 하였던 욕심은 분명히 위축된다. 오히려 무의식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출해 낸 명제가 현상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이론화에 앞서 더 많은 자료를 모아야되고, 거대한 이론 보다는 적정단위와 수준에서 구축된 탄탄한 가설을 먼저 정립해야겠다는 을추정을 맞게된다.

이는 학적 겸손의 시작이다.

부 남 철
〈본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 "이책은 비교정치학에서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방법론적 연구성과물을 담고있다"

대상에 대한 총체적 연구방법으로 비교분석의 미시적한계 극복해야

철학(즉 실체(reality)란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실체이며 단지 인간이 그것에 대해 불완전한 지식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의 옹장한(?) 현실적 면모는 막스셀러적 표현에 의한 수학적 상징의 세계상으로서 「국제적 과학공화국」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비교정치연구」의 핵심은 방법론에 있다. 여태까지의 비교는 「무엇」을 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왔는데 이책에서는 혁명적(?)으로 참신하게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곧 실증사회과학이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발전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논리실증주의의 계급적 기초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이들의 계급적기초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상부구조적 측면 즉, 학문적·철학적 측면을 대변해주는 기술관료-이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잉여가치의 우회적 획득」과정(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일반의 유통과정속에서 기생하는 쁘띠부르조아이다-인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계급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학자들은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진정한 합리

신나는 게 없을까?!

퀴즈아카데미

■방송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예선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여의도 MBC TV 제작 3부

789-3283~7

* 지금 곧 전화하십시요 *

운전을 배웁시다

21년 전통·성실한 교육

①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②박아소 무료 운영
③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외국(이민) 출국자 특별환영
⑤실습시간 자유선택
⑥통학버스 무료 운행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 매주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學院	은평구용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께 물어 보세요!

그 휴일한 광화문 영어 학교가 올 여름 방학에도 미국·영국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랭귀지 아카데미의 미국내 학교와 필라델피아 학교 그리고 영국 런던의 윗츠로이 칼리지 이브 잉글리쉬에 입학하여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 근처의 친절한 민박 가정이나 대학 구내 기숙사에 머물며 7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집중적인 영어 공부를 하고 역사깊은 명승지 문화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께 물어보세요. 공부도, 여행도 실속있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실 겁니다.

	미국 버클리 코스	미국 필라델피아코스	영국 런던 코스
기 간	1989. 7. 9~8. 7 (29박 30 일)	1989. 7. 9~8. 7 (29박 30 일)	1989. 7. 8~8. 8 (31 박 32 일)
프로그램	미국 연수	시티 연수	스쿨 연수
연 수	한국 영어 연수 (초급부터 고급에서 다양함)	한국 영어 연수 (초급부터 고급에서 다양함)	한국 영어 연수 (초급부터 고급에서 다양함)
관 광	샌프란시스코, 유학 휘발턴,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디즈니, 유학, 휘발턴, 하와이 등	필라델피아,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디즈니, 유학, 휘발턴, 하와이 등	런던, 파리, 마드리드, 로마, 제네바, 비엔나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등

여권과 비자의 수속은 전들있는 (주)세광 여행사에서 해 드립니다. 등록 절차 문의는 광화문 영어 학교 언어교육학원으로 해주십시오.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 호텔뒤 (02) 737-4641 (대)

광주항쟁장편연작시!

광주의 깃발

●박경온 著

그 참혹한 탄압 속에서 죽음을 넘어 민주주의의 인간성의 존엄을 위하여 광주 민주 시민들이 어떻게 절규하며 피흘려 싸웠는가. 시인의 체험과 상상력을 통해 심도 있게 표현했다는데 이 시집의 특이한 성과와 보람이 있다

(숭실東 / 시인)

지금도 아물지 않은 민족의 깊은 상흔. 5.18 광주민주항쟁. 그날의 실상을 긴장과 감동의 파도속에 생생하게 그려낸 저항 문학.

● 1×6판/131쪽/값 2,000원

인의 ☎764-0147 9

軍·행정병 모집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펜 차트·돈안 글씨

자격 : 일반사구 17~26세 고등학교졸업이상 (국방부 지정)
특전 : 일반행정 육군 전체에서 기술행정 육군 전체에서 일반행정 단독 입영 (교육훈련 방송)
훈련 : 2개월 (훈련기간 중 주말 외출 외박 가능)
신청 : 인성 서예 차트 학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인성빌딩 3층 전화 : 735-3771, 732-5346)

초헌법적 민중운동 탄압기구, 공안합동수사본부

조 국
〈국가법문제 연구가〉

Ⅰ. 공안합동수사본부 발족의 의미

당면 정세는 지난 달의환 목사의 북한방문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현 권력은 중간평가 유보조치 이후 취했던 「보수대연합」 전술을 수정하였다. 「개량」을 가장했던 현 권력의 본질이 전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권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1백 9일에 걸친 파업투쟁을 육·해·공 3면입체작전으로 폭력진압하였고, 또한 권력 스스로도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5공 청산작업도, 재개하려던 「북방정책」도 수정하면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을 「6·29」 이전의 상황으로까지 돌아부치려는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른 현 권력의 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족된 것이 바로 「공안합동수사본부」이다. 문목사 일행 방북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안기부, 검찰, 경찰은 지난 4월 3일 이건개 대검공안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켰다. 공안합수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전면 공격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공안합수부는 발족 즉시 남·북한 범민족대회를 추진한 이재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과 남북작가회담을 추진한 고은 시인을 국보법 위반(통신·회합미수) 혐의로 구속하였고, 전민련 사무실과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북한원전 등 「좌경이념서적」을 발간한 11개 출판사와 이를 판매한 전국 2백96개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1종 1만여권을 압수하였다. 이어 4월 10일에는 전민련 이부영 상임의장을 강제연행하여 이후 국보법 위반(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와 함께 전민련 자체에 대해서는 국보법 상의 「이적(利敵)단체」 여부를 수사하고 전민련 산하 2백40여개 가맹단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방북 후 귀국한 문목사 일행을 공항에서 연행 국보법 위반(지령수수에 의한 탈출/반국가단체구성원 활동의 찬양·동조/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혐의로 구속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북한원재개획을 이유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영희 교수를 구속하였고, 곧이어 한겨레신문 임재경무사장과 강윤환 편집위원장을 연행하였다.

한편 공안합수부는 4월 17일 「세계노동절」행사에 대비하여 경기도 일대의 노동상담소 등 제야노동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서울·수원·안양·안산·부천·구미·포항등지의 노동단체 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를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수원·안양·안산노동상담소, 경기남부지역 민중민주운동연합, 안양우리자리회, 안산 밝은자리회, 용인 기흥독서회 등 7개 노동관련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서는, 각 단체의 간부들을 노동계의조정법위반(제3자개입금지)혐의로 입건하였다. 그리고 전국임금인상투쟁본부 관련자 58명을 연행하여 본부장 단병호씨 등 7명을 노동계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서울노동운동 단체협의회 등의 단체와 노동자대학 등에 대한 내사를 착수해갔다. 4월 18일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인권유린 폭력분규」로 규정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공권력투입 강제진압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러면서 공안합수부는 경기 부천지역의 4개 장기노사분규 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 노동자 1백75명을 연행하여 (주)우일 노조위원장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문성현씨등 2명을 수배했다. 그리고 「4·30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서는 대우정밀 노조위원장 등 19명의 노동자를 불법노사분규 주동혐의로, 반월공단 노동상담소장 등 제야노동판계 관계자 11명을 제3자 개입혐의로 각각 구속하는 등, 30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고, 경기농성을 벌이고 있던 인천 삼양유지사료와 반월 유한전자에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공안합수부는 현 신식민지 파시즘의 국가권력 도구로서 자기위상을 분명히 하고있다. 현존 지배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피지배계급의 저항에 대한 억압을 자기목적으로 하는 국가는 군대, 검찰, 철보기관, 경찰 등을 자신의 도구로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각 국가기관들은 그 편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며 항상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체제가 위기에 처하여 체제옹위의 긴급성이 절박할 때, 그리고 피억압계급의 저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될 때에는 그 협조관계는 현격히 강화되며, 단일 편제로 재정비되기도 한다. 지난 79년 신군부의 정권탈취에 전초병 역할을 한 합수본부가 그 단적인 예이며, 이번의 공안합수부도 형식적으로 총책임자를 검찰이 맡고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 그 성격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할 것이다. 단적으로는 「5공화국」시절 권인숙씨 사건 등의 인권유린사건을 은폐조작했던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여 공식화, 최근 확대강화된 것이 공안합수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안합동수사본부 부설치의 법적 근거 비판

국가권력의 도구인 검찰, 경찰, 안기부 등은 지배계급에 의해 제정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안기부법 등으로 자신의 존재근거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 쿠데타에 의한 권력기관도 자신을 법적 외피로 분식하려한다(예를들어 국가재건최고회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그런데 공안합동수사본부라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들격격퇴기구의 설치는 법적 근거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리하여 공안합수부 설치 이후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문제가 일게되자, 공안합수부측은 4월 19일 「공안합동수사본부 설치근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안합수부의 설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안합수부라는 특별기구의 설치근거를 「기관간 업무협조규정」(1884. 3. 16 대통령령 제11385호)의 제5조 3호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업무협조에서 구하고 있다. 또 법률상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집한 「공안범죄·정보」등을 법률상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공안합수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과연 정당한가. 먼저 합수부측이 제시하는 「기관간 업무협조규정」은 일상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형식의 「사무규칙」 일뿐이다. 이러한 한낱 기술적인 것에 불과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에 한 전면적인 공격을 전두지휘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법논리로도 「불법」이라 하겠다. 국가기관의 설치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가져야한다는 「행정조직 법정주의」(현행 헌법 제96조)에 비추어 보아도 공안합수부의 설치는 「위헌」인 것이다.

민중이 진정한 「주권자」이며 참으로 민주적인 국가라 한다면, 행정기구의 조직은 그 자체가 국가구성원인 민중의 기본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구성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구성 후에도 민중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행정기구의 조직권한은 행정부나 그 수반인 대통령에게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특별기구의 설치가 정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그 설치의 근거와 절차가 부당한 공안합수부는 애초부터 정당하게 행위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기구인바, 그 설치는 법치는 총체임을 지면서 「정보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안기부법 제2조 5호)를 수행해왔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동법 제14조)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국가기구를 지휘해왔다. 이러한 때카니즘이 이번에 공안합수부의 발족을 통해 공식화되었을 뿐인 바, 관련기관간의 협조운운은 명목적인 이유일뿐이라 하겠다.

그간 공안합수부의 운영실태에서 잘 알수 있듯이, 검찰공안의 주도체인 안기부 자체가 80년 이후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을 선봉에 서서 자행해왔던 기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안기부법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5공시절의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지목되어 폐지되요구가 강력했던 법이었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그러한 안기부라는 「괴물」이 노골적으로 활개치는 현 상황이야말로 공안합수부의 전쟁 근거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정세가 변화하기 전에는 정부·여당도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연명하고, 안기부장도 국내정치사찰에는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는 등 위장술책을 부린 바 있다. 그런데 정세가 급변하자 오히려 안기부를 확대·강화하고 일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안합수부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군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공안합수부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합수부측은, 보안사는 민간인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상 업무협조를 얻기위해 정책협의회에만 참여한다고 변명하였다. 이 변명에서 우리는 보안사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운동권」에 대한 정책협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중요한 것이 실무보다는 정책결정에의 영향력이라 한다면, 보안사가 안기부와 함께 공안합수부를 주도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다.

Ⅲ. 노동자계급을 필두로 하는 민중운동의 성장과 「과학적 세계관」의 결집

그리고 반공·반북·분단체제에 대한 문익환 목사의 과감한 타격은 현 체제로 하여금 체제옹위의 필요성을 절박케하였고, 축하여 보수·혁신이데올로기공세및 민간극우세력 앙성으로 5공독재부활의 음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권은 정국주도권이 일정정도 보장되는 여소야대정국속에서 오히려 노정권의 정치적 공세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노정권안정회의 최대장애물로 노정권자신의 존재근거조차 위협하는 5공비리와 광주문제만 보더라도 야당의 선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와의 협조속에서 평민당구조를 와해시켜야하고, 또 중간층이상의 안정회구 보수층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유지하려는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하다. 공화당은 민정당이 수세에 몰리면 많은 정치적 양보와 함께 연대를 제의해 올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렇듯 보수야당들의 개인적 당리당략은 그간의 민주화 투쟁속에서 다져온 야권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하지만 최근의 문익환목사 방북으로 다시 불붙은 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창구일원화방침과 마산·창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투쟁에 대한 야당의 불분명한 양시양비론의 결과론적 입장표명도 이제는 투쟁적인 인물·세력이 야권의 주도권을 쟁취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좀더 투쟁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한국정치 40년야당사에서 야당은 확고한 대중기반과 역량의 기초위에서 조직되었다기 보다는 다분히 상황의 변수에 편승한 일종의 바람에 의존해 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또한 기존의 야당들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오류는 지금도 존재해 왔고 그러한 오류를 현시점에서도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속에서 대중들을 좌절의 늪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록 야당의 민중들이 아직도 그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현시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및 활발한 투쟁이 선행되어 대중진출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대중적 진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보수야당세력들과 더이상 타협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이영희 교수가 구속 6일만에 변호인단, 가족등을 면회하기 위해 중부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법률 근거없는 공안합수부는 「위헌」
애국·민주세력 단결로 반드시 해체시켜야

김 동 옥
〈인문·철학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바로 단결의 필요성과 분열의 해악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단결될때만이 그힘이 발휘될 수 있다.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야당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효과적인 전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분열되어 존재한다면, 단순히 분열은 세조각 난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분열이 심각하면 국민들은 분파를 조성한 현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결코 신뢰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요즈음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접하는 우리는 너무도 어이없는 사실에 분노와 탄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노정권은 보수야당을 민주진영으로부터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으로 분리해내고 민중운동권의 분열을 유도하여 민중들에게 부르조아 민주주의환상을 심어놓고 보수대연합제세를 구축하는 것이 노정권의 조기퇴진을 대는 등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경들을 밀어부쳤어요. 더군다나 신나가 뿌려져 있을때는 소화조를 먼저내보내야 했는데 이런 기본원칙도 무시해 버렸죠. 그리고는 참사가 일어나자 학생들만을 살인자라며 폭력치죄를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살인자는 결코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양심선언과 함께 동의대참사 책임자 내무장관 사퇴, 경찰민주화·중립화쟁취, 폭력진압사과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으셨는데 그중 「공안합수부」해체와 「경찰민주화입법추진 범국민회의」구성이 특히 주목됩니다. 이러한 안을 내놓으시게 된데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철—「공안합수부해체」는 현재 안기부가 검·경찰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중립성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공안합수부가 법적으로도 존재근거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경찰민주화입법추진 범국민회의」구성안은 최근 여야당이 각각 입법을 위해 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안들로는 경찰의 중립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의한 것입니다. 경찰간부추천권같은 경우도 각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견인될수 있는 사람들이 추천되어야 합니다. 구성범위는 한국 기독교 인권위원회, 전민련, 전대협, 정경해제투쟁위원회, 야당당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자—만약 현정권이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그이후 사법적처리는 받으시겠는지요. 또한 만에 하나라도 강제연행이나 평민당에서 신변보장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이상철—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들은 모두 부대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한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강제연행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저희들은 목숨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우연히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나 동료 전경,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이상철—오늘이 어버이날임이 오늘 아침에야 생각났습니다. 꽃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울먹임)

▲황원진—저희가 이곳에 온 후 저의 어머니가 찾아와 「이제 제대도 얼마남지 않았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갈등이 생겼으나 「이일은 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4천만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당신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할 때가 올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동권—저는 저희 중대 동료들에게 저희들때문에 분명히 피해가 갈 것을 알지만 부디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동주—저희 중대장님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분인데 피해가 갈까 걱정됩니다. 제발 경질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호—제도 남아있는 동료들이 걱정입니다만 이해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었으면 합니다.

▲정균한—학생들은 동의대사건이 전체 운동역량에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끼쳤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순직경찰추모및 과잉진압규탄대회」등을 열어 사건의 근본원인을 명확히 밝히며 너무 위축되지 말고 신중히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동의대사건을 철저히 반성, 새로운 역량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양심선언 경찰명단

이상철 수경(66년10월9일생)—인천교대·교육2휴학
유성호 수경(66년10월17일생)—외대독어1〃
황원진 수경(65년3월17일생)—건국대 독문〃
정균한 상경(67년3월6일생)—서울대축산과2〃
손동권 상경(67년3월6일생)—고졸
강동주 상경(68년7월20일생)—〃

주제 인터뷰

"우리는 더이상 정권의 하수인일 수 없습니다"

대담자 : 이상철외 5명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진압중대소속〉
이 진(본보 사회부장)

▲기자—지난 5월3일 부산동의대 전경참사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정균한씨를 비롯한 여섯분들의 양심선언은 매우 충격적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곳 평민당사에 오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한—예. 저희들은 모두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진압중대」소속인데 오늘(5월8일) 새벽 부대를 탈영하여 5시30분께 평민당사를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7명이 오려고 했었는데 모의했던 동료중 1명은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행동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너무 급박하게 설정한 일이라 평민당사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오전8시 화장실로 들어가 성명서를 싼들고 8시30분 「5월가」, 「임을 위한 행진곡」, 「친구Ⅱ」등을 부르고 「동료의 죽음 발반으로 경찰민주화, 중립화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중계실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11시30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군대와 같이 엄격한 사회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이후 책임처벌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힘든 일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양심선언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상철—동의대 참사가 구체적 계기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테러로 매도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경찰중립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4월30일 「노동자대회」건압도 하나의 동인이었구요.

▲정균한—제 경우도 4월30일은 정말 탈영을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새강대를 진압했었는데 교문가에 서 있던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양심선언을 하고 우리와 같이 싸우자」, 「너희가 사람이냐」는 등의 욕을 먹으며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는가」하는 회의가 쏟아져 나오더군요.

▲유성호—저도 4월30일 진압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집회주최측에서 분명히 평화시위, 질서유지를 하겠다고 맹맹으며 새로운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탄압을 명령했고 세력부터 저희들은 발이 부르트게 뛰어 다녀야 했습니다.

▲기자—구체적 계기가 동의대 사건이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들은 일제히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테러를 비난하며 폭력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균한—동의대참사의 문제는 파잉진압이었습니다. 고충건물이므로 투신을 메트리스를 받드시 깔아야 하고 고가 사다리

애국외대 총파업투쟁 평가

서울 : 각학과 토론이 선행된 상향식의견 집중의 투쟁전개
용인 : 투쟁의 대중성 확보위한 학과별투쟁조직이 건설돼야

지난 5월1일 1백주년을 맞이한 세계노동자의 날을 전후로 서울·용인 양 캠퍼스에서는 각각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번 총궐기투쟁은 지난 87년 6월투쟁이후 오랜 휴지기를 거쳐 전행된 대중적인 정치투쟁으로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하겠다.

이에 본보에서는 메이데이를 전후로 이루어진 이번 총궐기투쟁에 대한 평가와 평가정리를 통해 이후 5월항쟁 계승주간을 맞는 본교생들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캠퍼스의 5월1일까지 10여일간에 걸친 파업투쟁은 지난 4월19일 시위도중 조기연군(서양·영어2)의 실명이 들패구가되어 전개되었다. 한편 용인 캠퍼스는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4·19기념집회에 이어 5월1일부터 3일까지 「5공독재 부활음모 노태우정권 퇴진과 노동연대를 위한 동맹파업」이 전개되었다.

이번 총궐기투쟁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자세로 일관하던 본교생들이 주체적으로 일어선 대중투쟁이었다는 점과 둘째는 학생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캠퍼스의 선도적 총파업투쟁은 이후 서울지역 40만청년학도의 동맹휴업을 촉구하는 모범적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총궐기의 의미에 대해서 「광주학살 5공비리원흉 민중운동탄압주범 노태우정권퇴진을위한 애국외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본부장 이중협군(사범·독교4)은 「4월21일 총궐기 촉구대회를 깃점으로 전면화된 이번투쟁의 대중적 파급력은 토·일요일을 가리지않고 실시된 토론회 파종회로 대변된다」면서 「조기연학우 실명으로 폭로된 노태우정권의 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이 일반학생들로 부터의 문제제기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작되었고, 마침내는 전국백만학도의 선봉에 서는 모범을 창출했다」고 말한다.

개괄적인 총궐기투쟁의 외화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총궐기의 제기와 결의형태를 보면, 서울의 경우 실제로 총궐기의 출발점은 조기연군의 실명으로 총궐기일정의 사전준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그러나 각학번·학과단위토론과 결의가 철저한 상향식의견집중으로 운영위원회(각단과대 학생회장 참여)→확대운영위원회(각학과 학생회장참여)→비상학생총회(희석에 근거한 최고의결기구)의 조직체계를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 내릴 만하다. 반면, 용인의 경우는 4·19총궐기집회의 대중적궐기를 지속시키면서 5·1동맹휴업을 조직하기위한 계획을 준비하여 한시적으로 투쟁을 진행시켜나갔으나, 이에비해 각학과등에서의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총학생회결의가 각학과단위로서 학달되어 결의되는, 일반학생들 자체의 자주적인 투쟁결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양캠퍼스의 파업투쟁이 시기적 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으나, 모든투쟁의 현장에서 참여하는 학생모두가 투쟁의 주인으로 서지못하고, 학교밖투쟁시 소수학생만이 참가하는식의 오류 반복은 양캠퍼스 커다란 문제로 나타났다.

양캠퍼스에 나타난 투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상황설명분석으로 평가해보자.

먼저 서울캠퍼스의 경우 아래로부터 끌어오르는 열기를 지도부내에서 올바르게 수렴해내지 못했다는것이다. 이것은 파업프로그램의 단조로움이나 일반학생의 생각을 넘어선 조급한 파업지도로 주변의 학생을 파업투쟁으로부터 유리시킨 활동성원의 문제로 외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조기연군 실명을 사회지변으로 확대시키고 학내의의 광범한지원획득, 노태우정권의 폭력성폭로등과 결합시켜야할 사업방침이 경시되는 쪽으로 보여이는 결국, 4·30 5·1집회회의 범외대적 참여보장과 교내의의 지지성원획득에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다.

위와같은 문제점들은 이번 총궐기기간에 각과별로 조직된 투쟁기구와 조직을 이후 투쟁본부중심의 굳건한 골간 체계로 강화시켜나가고, 학술·홍보부분의 조직적강화와 투쟁본부사업을 집중력있게 실천으로 극복되어져야 할것이다.

용인캠퍼스의 경우도 예년과달리 4·19집회를 대중적궐기로 이루어내면서 이후총궐기의 밝은전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시험기간이라는 한계속에서 토론용자료집2회발간, 성남지역중심연합집회등의 소수학생 참여만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총궐기가 전면화되지 못했다. 또한 서울의 조기연군 실명에 대한 홍보도 부재한 채, 모금·서명운동을 통한 대중적판심도 집중시켜내지 못했다. 이어 5월1일을 맞이하면서도 용인캠퍼스내부에서 동맹휴업, 노정권퇴진 총궐기가 폭넓게 공유되지도 못했고,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지 못했다. 투쟁일정만이 지속질뿐 구체적이고 새로운형태의 파업프로그램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용인의 총궐기투쟁평가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속에서 크게 세가지정도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본다.

첫째, 조기연군 문제로 일정부분 정례화된 부상학우사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조기연군 부상의 윤용배(서문·서반아어4)군등 시위도중 부상학우들의 속출에 대해 용인총학생회는 일단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산하 부상학우 관련 대책위원회를 건설하고 타대학과 연대할것을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조기연군대책위원회(위원장: 정재원총학생회장, 동양·일본어4)는 조군의 진단서가 나오는데로 내무부장관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학우에 관한 문제는 서울·용인캠퍼스가 공동으로 대책위를 건설하고, 학교측을 상대로한 접촉과 대정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양캠퍼스가 공동선상에서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둘째, 5월11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3기 발대식과 광주망월동묘지순례로 시작하는 5월「광주항쟁계승기념주간」을 준비해있어, 지난 총궐기투쟁과정속에서 드러난 전체학생의 참여보장을 원칙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총궐기동맹파업의 힘있는 기운을 계속 북돋울수 있는 소규모투쟁(불법연행·구속학우석방, 각학과·단대별투쟁사업)을 전개하면서 모든투쟁의 대중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과토론회를 대중정치토론의 장으로 설정하되 대중적정서에 근거한 토론을 벌여나가고, 파업투쟁기간중 조직된 사업역량을 올바르게 보존,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용인캠퍼스의 경우 「5공독재부활 걷사반대 노태우퇴진투쟁본부」를 각학과별로 건설하는일에 매진하면서, 학생대중 스스로가 모든 조직과 투쟁의 주인으로서고, 투쟁본부가 통일적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정형화시켜야 할것이다.

〈류계환 기자〉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발족

「동총련」 「용성총련」 각각 출범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연) 제2기 발대식」이 본교생을 비롯한 서울시내 각대학생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4월25일(화)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 신임 임종석군(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대협과 제1기 서총련을 계승·혁신하여 조국의 앞날을 밝히고 구국의 횃불로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앞당기자」고 주장했다.

서총련은 지난 4월22·23일(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제3차 정기전체대의원총회를 열고 임군을 서총련의장으로, 부의장에 서울대총학생회장 문광평군을 선출했었다.

한편, 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동총련)발대식이 지난 4월21일(금) 오후2시 건국대 해방광장에서 열렸다.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 제3기 출범식및 5월투쟁선포식」이 지난 5월3일(수)오후2시30분 용인캠퍼스 명수당 야외무대에서 본교생 3백여명을 포함 경원대, 경희대, 유도대등 용성지구 7개대학 5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명지대 총학생회장 장봉수군(경상·경영학4)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용성총련 제3기 의장으로 선출된 본교 총학생회장 윤원철군(사회·경제3)은 취임사를 통해 「일반학생들의 공유가 없으며 계열별·부문별 조직강화에 실패했던 제2기 총련을 비판하고 이를 거울삼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을 강화, 용성학련을 지향하는 총련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윤군은 또 5월투쟁 선포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5공부활, 군정연장을 노리며 진행되는 노태우 정권의 폭압경제 분쇄를 위해 총궐기하자」고 주장했다. 집회후 학생들은 교문으로 진출 시위를 막는 전경 4백여명에 맞서 약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오는 5월11일(목) 충남대에서는 제3기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발족식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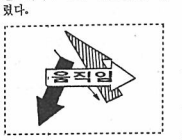
마인어과 백일장 열려

인도네시아 대사상에 김기한군등 입상

본교마인어과 창립25주년기념 백일장, 원어낭송회가 서울·용인캠퍼스, 부산지역 마인어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3일(수)과 4일(목)양일간 대학원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로는 용인캠퍼스마인어과의 인도네시아 전통무용춤과 서울캠퍼스마인어과의 인도네시아 전통의상공연이 열렸다.

「여행」과 「존경하는 사람」를 제목으로 열린 이번 마인어백일장 및 낭송회에서 대상인 인도네시아대사상에는 김기한(동양·마인어3)군, 황하숙(동문·마인어3)양등 총8명이 입상하였다.



〈교수동정〉

▲김안식교수=무역학과

일본 나고야 상과대학 주최의 제29회 일본무역학회 전국대회에서 「과도정보화 시대의 무역과 국제경영」에 대한 연구발표와 일본무역관계 수속관계 간이화협회 주최의 세미나 참석차 일본방문.

기간:5월13일~19일

〈영화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2202호)

○기간:5월8일(월)~11일(목)

▲명화의 고향「폴 세잔느」 45분 소요-매일 오전10시

▲「파라다이스(Sprander than paradise)」-120분 소요 16일(화)

▲「길(Yol)」115분소요-월·수 2시/화·목 5시

▲「샤넬(Chanel)」 124분 소요-화·목 2시/수 5시

▲「당통(DANTON)」 128분 소요-월 5시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영사실(1412호)

○시간:매일 오후1시30분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160분 소요 8일(월)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120분 소요 9일(화)

▲「지옥의 용병(Apocalypse Mercenaries)」-120분 소요 10일(수)

▲「칠일자(Passion)」-120분 소요 11일(목)

▲「거미여인의 키스(Kiss of the spider woman)」-120분 소요 15일(월)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동구어계열 단대승격문제 쟁점

학교측,시기부적절 등 반대입장 표명

지난 87년도 학원 민주화 사업때부터 학생, 교수들 간에 계속 제기돼왔던 5개 동구어과 중심의 단과대학 분리문제가 지난 4월 18일(화) 「동유럽 5개 학과 학생회연합(이하 동학연)」의 공개질의서 발송등 학생들로 부터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동학연은 지난 18일 1차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역학 도입의 유무, 서양어문대의 양적 팽창 등의 이유로 단대분리의 필요성을 말하고 단대분리의 시기, 범위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학교당국은 지난 4월21일(금) 회신을 통해 동구어계열 학과의 학문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며 취업기반이 아직 공고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 3학 정도 졸업생을 배출한 후에 단대분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학연은 21일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 다시 한번 단대분리의 타당성을 강조했으나 학교당국은 시기의 부적절, 교수 충원등의 이유를 들며 「학생들은 각 학과장 교수들과 계속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체코어과회장 신건수군(2학년)은 「학교당국이 마스터플랜 중기안에도 명시된 단대분리 문제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의심스럽다」며 「최대한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교당국과 논의하겠으나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될 시강력히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캠퍼스 교육개선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수교수(루마니아어과)는 「관련 학과 교수님들로 단대분리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학생, 교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연대 교학과 교양특강 실시

자연과학대 교학과는 지난 5월3일(수)오후2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지질·화학적 고찰」을 주제로 교양특강을 실시했다.

교협 회장단 선출

회장에 노동선교수

본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지난 3월15일(수) 노동선(동양·중어)교협회장을 비롯한 89학년도 신임회장단 및 평의원 26명을 선출하였다.

교협정기총회를 거쳐 선출된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회장:노동선(중어) ▲부회장:박원석(법학) 천정균(화학) ▲총무:임광들(일어) ▲감사:김명옥(영교) 이운배(경경)

천재일우의 기회

○…「열사의 뜻 이어받아 폭력학생(?)뿌리뽑자」라는 신종구호들 내세우며 노가리가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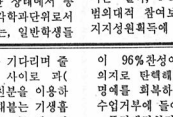
내용인즉 동의대 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사건을 기화로 학생운동세력 제거를 위해 대통령의 절대영역(?)인 「비상한 조치」를 검토하는가 하면, 공포(空怖)가 발포(發怖)로 이어진 9년전 공포(恐怖)시대 개막을 포고했다는 것.

경찰들의 무고한 죽음마저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은 노가리의 처사에 크로니클과 그저 감탄할뿐.

○…왕산문제 제1호, 교통문제가 요즈음 일부흡산들의 성부성조(?)로 악화일로를 걷고있다고.

사연인즉, 새로생긴 양재역 노선에서 승차를 기다리며 줄서있는 흡산들 사이로 괴(科), 동아리의 친분을 이용하여 맷맷하게 빈대붙는 기생흡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로 그숫자가 놀라와 항의대자보까지 나붙는 형편이라고.

자가용 타고다닐 능력도 없고, 마땅히 뻑(?)도 없는 흡산들, 하나같이 단결하여 이번기회에 교통문제해결에 함께 나서야할 사(事).



○…민초뜻 모르는 지도자의 정권말기적 망동을 「모범적」으로 거세시킨 남쪽지방 애국민초들의 소식을 접해.

내용인즉 총학생회 학도호국단회를 꾀하며 「전대협탈퇴기자회견」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총×대 학생대표를 학생들이 96%찬성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탄핵해버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시한부 수업거부에 들어간것이 그것.

폭력세력척결을 빌미로 국민을 협박하는 「탄압쾌통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노가리에게도 4천만의 탄핵권을 발동시켜야 할 터.

○…모처럼 이문벌에 학생, 교수, 직원이 삼위일체된 희귀한(?)소식이 날아들어.

사연인즉, 지난달 모과의 백혈병학우 입원비마련과 전경투석으로 실명위기에 놓인 조기연학우를 돕기위한 학생들의 모금운동의 따뜻한 기류에 직원과 서양어대교수들이 합세, 모금을 시작했다는것이 그것.

바야흐로 따사로운 온난기류가 이문벌을 풍미했는데, 그러면 쾌동에도 흔들림없이 곧추서 학원수호위한 교수, 직원, 학생들의 연대가 가을에 쭉나뭇한 옛모습은 청산해야할터.

○…임시교원양성소설치시도로 악명 날리던 문교부장관, 각대학 총·학장을 친히 불러 대학언론의 자율권보장을 지시했다고.

대학언론 제작·편집자율을 요구하던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삭제와 검열을 강요하던 문교부가 느닷없이 자율권보장을 지휘한것은 민주세력 처벌을위한 자율권보장이라는 것이 명백.

탄압을 위한 자율의 덫을 선사한 당국자에게 진짜 「편집자율권 위력」을 선사하는게 예의일듯.

자율의 개념(?)

비둘기 칠판

이문

각종모임, 전시회, 축하사연, 분실물… 외대학보가 마련한 「비둘기 칠판」은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자잘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알리고 싶은 내용을 매주 토요일까지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십시오.

제출처 : 서울 - 학생회관 203호
전화 : 965 - 7048 〈직통〉
교환 : 2152
용인 - 학생회관 212호
교환 : 2112

왕산

5월 2일 7시경
기숙사 식당화장실
세면대에서 시계습득
잃어버린분은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로오세요

5월 11일은 현정이누나와 동호의 생일입니다.

마산의 학우들은 모두모여 이들을 축하해줍시다.
11일 오후 5시 분수대에서 만납시다.

머나먼 남쪽나라 고흥에서 온 사람들아 모입시다.

(우와우와 응성응성!)
● 시간 : 5월 11일 5시
● 장소 : 상징탑
● 회비 : 3천원

네 본향이 너를 부른다
모든 까아만인들은 모여라
재외대 검정고시 동문 체육대회
● 일시 : 5월 13일(토) 오후 3시
● 장소 : 왕산대운동장

손 말 사 랑 회

전국 40여만 농아분들과 함께 하고자 수화를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정식 외대동아리 「손말 사랑회」가 후원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을 위해 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생회관 318호로 연락바라며 특히 교수님및 교직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좌번호

농협 : 037 - 12 - 082526
제일 : 203 - 20 - 199708
조흥 : 329 - 4 - 078657
손말 사랑회국민 : 019 - 24 - 0178 - 380
오재혁

태국어과 학생회 산하 「태국민속춤밤」은 지난 4월24일(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1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태국민속박물관」을 개관합니다.

학우 여러분의많은 관람 바랍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일회용 신문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 진단

문화시론

손 은 옥

〈일사랑 언론분과회원〉

Ⅰ. 들어가는 말

스포츠는 국민 각자의 건강한 의식과 튼튼한 신체를 가꾸는 디딤돌이다.

「스포츠 신문」이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사회건설에 이바지할 때 건정한 역할 수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하겠다. 두말할 나위없이 「건강한 사회」란 바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사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스포츠 신문」—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보다 구체화시키기위해 먼저 스포츠 신문의 탄생 배경과 그 목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신문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증심말

익히 알다시피 「스포츠 신문」은 군부독재 권력이 자신들의 정통성 부재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군부 세력은 3S(sports, screen, sex)정책을 스포츠 신문에 그대로 반영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잠아먹어왔다.

그러면 먼저 3S정책이 스포츠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국민의 정치의식 무마위한 3S정책의 산물
전통·생활체육 보급통해 공동체문화 창출해야

3S정책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바로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희석화하는데 있으며 또한 우수선수 선발을 경쟁적으로 벌여거의 모든 스포츠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경쟁의식을 유발시킴으로써 올바른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흐트리는데 있다 하겠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3S정책이 스포츠를 선수들만의 스포츠로 전락시킴으로써 국민들을 대상화시키고 그러한 결과 모든 면에서 수동적인 인간을 탄생시키고있다는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3S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S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정치 의식의 희석화 의도는 만화를—스포츠 서울의「발라리의 추억」, 일간스포츠의「통김이 홍」등—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만화는 대중들과 가장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그 내용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신문」의 만화를 보면 무희미한 내용과 선정적인 장면을 서슴없이 묘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중들의 건강한 삶의 의식을 주제로 한것이 아니라 유희의 극치만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또한 3S정책이라는 말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대로 철저히 상업성을 띤 내용물이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바로 「스타」일색—스포츠 서울의 「스타고백」, 일간스포츠의 「스타—괜과 만나다」등—의 지면할애이다. 이러한 양상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의 소외감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양산시키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문화가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대중 문화라면 「스타 문화」풍조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3S정책은 철저히 서구 지향적인 관점을 「스포츠 신문」에 반영하고 있다. 연예·오락면을 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민족적 관점에서 기사를 쓸 때만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S정책의 당연한 귀결로써 「스포츠 신문」의 대중선도 역할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위의 「유용상의 문제」에 의해 벗어진 「스포츠 신문」의 성격 문제이다.

대중들의 순간적인 관심을 유도해내는 데만 집착함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난파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활 스포츠」를 연구·분석하는 연재물도 게고해 볼만하다. 「스포츠 신문」의 부차적 역할을 대중 스포츠의 확산에 둔다면 「생활 스포츠」의 보급은 커다란 의의를 지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체육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물을 제안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 스포츠의 활성화는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는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스포츠 신문」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아주 약소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 사회의 디딤돌이 될 「대중 체육」의 건실은 한국의 스포츠 신문이 담당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라 믿는다. 이는 타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 체육」의 도입과 그 올바른 활용 방법을 연구·보급함으로써 성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포츠 신문」의 탄생 배경 자체가 정권 유지를 위한 한 수단에서 비롯되었기에 단시일에 시정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신문」의 질적 변화를 바라는 전 국민적 관심을 일선 기자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경의식과 향락적 문화만을 배출하고 있는 현계의 「스포츠 신문」이 더 이상 버려진 실속없는 신문으로 구박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 「스포츠 신문」은 새로운 몸짓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다.

신간소개

재미있는 철학강의
—한수영 의 지음

이책은 변증법적유물론과 사적유물론등 마르크스주의의 근본문제를 자습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기존의 수정주의적·교조주의적인 철학체계를 비판함과 아울러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마르크스철학의 이론과 실제를 현실적 문제와 결부시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성과현실피냅 값 6천2백원〉

애국의 길Ⅰ
—편집부 엮음

사상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기간행물로 출간된 이책은, 보다 대중적인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당면정세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현시기 애국민중세력과 반민주세력간의 전망을 다룬 권두좌담「89년 민족자주화운동을 전망한다」와 특집 애국민주운동의 과제와 전망, 사상·이론의 학습방법론등을 실어 민족해방의 이정표를 마련하고 있다.

〈녹두피냅 값 4천2백원〉

연재소설〈세번째〉

야학일기

은 종 복 〈동양·중국어4〉

교사회의 시간이다. 열한명의 교사가 모두 모여야 한다. 영어선생을 제외한 모든 교사가 왔다. 교무실은 교사들이 피워대는 담배로 안개속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나갑시다」

「…너무 속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야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야학생들은 어떻게 하지요」

「나가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일러요. 내가 아는 친구도 지금의 한마음야학처럼 외부의 입김이 세어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1년도 못있고 나오고 말았어요. 종교를 강요하고 일요일에도 교회에서는 잔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곳을 나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야학교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4학년인 한문선생이 얘기를 하자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긍하는 몸짓이었다. 한문선생은 대학4학년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했고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기에.

오래고 지루한 회의는 정리되었다. 결국 선도위원측에서 나가라고 선언하기 까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버티자고.

야학자체에 힘이 생길 때까지.

태균이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담배만 피웠을 뿐 자신의 의견을 한번도 내지않았다. 이런 모습을 야학학생이 본

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동수가 본다면 태균이의 줏대없음을 질책하지 않을까. 태균은 회의가 진지해질수록 동수의 얼굴이 자꾸 피어났던 것을 기억했다. 공장에서 쥐죽은 듯이 일하는 노동자와는 달리 항상 불만이 있는 듯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동수는 태균에게 저을 수 없는 화상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교감선생이 몇음말을 하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며 영어선생이 축처진 어깨를 하고 들어왔다.

「어이구! 우리의 민주투사가 오시는구만」

교감선생이 쉿소리를 했다. 영어선생은 헐클어진 머리칼을 손질할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영어선생, 시위도 좋지만 오늘같이 야학의 사활이 걸린 회의를 하는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야학의 문제는 야학내의 문제만이라고 생각지않아요」

「그렇다고 영어선생처럼 학교에서 시위가 있다고 야학일은 팽개치고 시위에만 가담해봐요. 야학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1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영어선생은 출석부와 교재를 들고서 조용히 교실로 사라졌다. 최투가스가 그의 등에서 짙게 묻어나왔다.

교감선생은 계속 투덜거렸다.

「야학교사만큼 사회현실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교사회의에 참석해야할 것 아니야.」

태균은 영어선생이 교무실을 나갔때의 몇모습에서 생명력을 느꼈다. 그것은 동수에게서 보았던 희망이었다.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교사들이 피워댔던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가을 밤하늘로 날아갔다. 그때따라 교사들의 진지했던 회의모습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잠시후 교무실문이 열리면서 그 삐삐라는 무선호출기를 끌고서 교장이 들어왔다. 교사들이 그에게 애를 갖추어 인사를 했고 교감선생이 그와 악수를 했다.

그러나 태균이는 피던 담배를 가만히 껐을 뿐 교장에게 목례도 하지 않았다.

전에 그랑지 않게.

잠든 문학혼을 일깨운다

◇외대「문학학교」개설에 대하여

민중·민족문학 전반에 대한 강연통해
올바른 창작풍토와 활동방향 모색

창작활동이 부진한 학내 문학풍토를 극복하고, 도식적인 문학이해를 타파하여 문학의 본질을 일깨우기 위한 「문학학교」가 4월24일(월)부터 오는 5월24일(월)까지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문화부 주최로 1주일에 1~2회씩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문학학교」는 좋은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문제와, 시대변모에 따른 우리문학의 변화양상을 구체적 작품과 논의를 통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매강연마다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강사와 참석자간의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강연주제 전반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

문학학교 입학식에 이어 진행된 첫날 강연은 「문학에 뜻을 둔 후배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문 소설가 송영씨가,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문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자신의 창작경험담에 비추어 강연했다. 4월27일(목)열린 「다시 보는 우리 문학사」에서는 「청록파」문학의 오류를 비판함과 아울러 민족문학전통의 관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카프문학의 해소·비해소파의 대립을 밝히는등 우리문학사가 민중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북한의 문학작품들과 관련 「북한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5월4일(목) 김형수 시인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 북한 주체문예이론의 골격인 종자론·속도전등의 내용을 점검하고 올바른 민족문학사—통일지향적 문학—구축방향을 모색했다. 5월8일(월)에는 「격정시대」「화산도」등 한국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해외동포작가들의 작품을 재평가하고, 우리 근대사를 문학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하는 「한국 근대사와 문학」이 문학평론가 임헌영씨에 의해 논의되었다.

이후의 강연은 민중시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80년대 민중시의 흐름과 전망」(5월11일), 우리소설이 담아내야 할 올바른 내용과 형식을 80년대 소설의 흐름을 통해 검토하는 「현단계 우리소설의 흐름과 전망」(5월15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80년 전후에 발표된 노동소설·시등을 평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진단하는 「현단계 노동문학의 현황과 전망」(5월18일), 현단계 변혁운동에 있어 외세의 문제와 문학의 위치·역할을 조명하는 「우리문학속에 나타난 외세문제」(5월25일)가 강연된다.

「문학학교」마지막 날인 5월29일에는 올바른 문학운동의 방향모색과 함께 총문학회 건설이 가지는 학생문예운동상의 의의와 역할을 다루는 「현단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와 올바른 문학운동」이 진행된다. 외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문학학교는 청소 문학에 관심을 가진 학우들에게, 체계적인 문학강연을 통하여 내용상 있는 창작실천전파·창작풍토 조직화등을 실현하기위한 초보적인 노력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하겠다.

〈서화교 기자〉

문화 기상도

「세계 노동절 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전야문화제가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주최로 지난 4월29일(토)연세대노천극장에서 열렸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기념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전야제는 「1989년 5월 우리 노동자」라는 제목하에 민중문화운동연합이 준비한 한국현대사 슬라이드상연과 춤 그리고 각지역 노동자들의 율번대회와 가요제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노동자문화제는 구성과 흐름의 짜임새가 부족하기는 했으나 노동자가 생산한 건강한 노동문화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 다음날 예정된 세계노동절대회 참여 의지를 북돋웠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글·사진:한성원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163) 되시기

(KBS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 방송순서 안내중에서)

「되시기」의 생략된 주어 「시청자 여러분」을 넣으면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가 된다. 이것은 비문법적인 문장임에 틀림없다. 「KBS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또는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가 문법적인 문장이다.

테크노피아를 향한 최첨단 기술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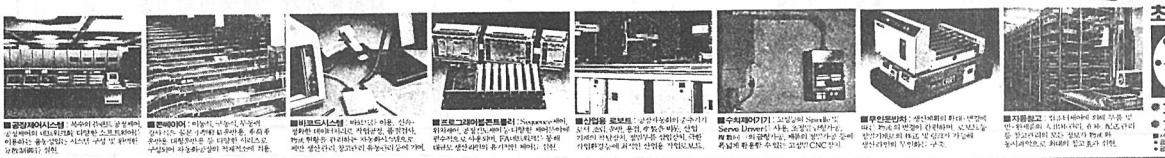
GoldStar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란?

제어컴퓨터 자동조립 산업용로보트 자동검사 자동창고 자동반송 수치제어기기

부서단위 자동화에서 풀·라인 자동화로—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FA

이제 공장자동화는 부서단위 자동화에서 전생산라인의 자동화까지요구되며, 나아가 공장전체를 관리·제어하는 전략적 공장자동화를 구상해야 합니다. 금성은 공장자동화의 구축에 따르는 다양하고 고도한 요구를 충족시킬 기술적 기반을 유기적 체제로 확립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실적으로 단계별 가장 유효적절한 공장자동화를 실현시켜 드립니다. 금성만이 가능한 공장자동화의 전략적 구상 —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읍니다.



■공장제어시스템 : 제어에 관련된 공정제어, 산업제어의 네트워킹, 디지털 스프트웨어에 이용하는 솔루션팩키 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지원서비스 등.
■로봇이어 : 이동식, 고정식, 특수용 검사기기, 용접 기기에 필요하는 용접전원, 용접봉 및 용접부분을 자동화하는 등 다양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자동화공장의 최적조건에 기용.
■메모리코드시스템 : 바코드와 이동, 신속, 정확한 데이터입력은 제품생산, 물류관리, 판매 현황등 관리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제안 생산라인의 필요라인 유동성에 맞게 기용.
■프로그래머블콘트롤러 : Sequence에서 위치제어, 공정제어, 아날로그제어 데이터제어 펌웨어로 사용되며, FA네트워크는 통해 대량로 생산라인의 유기적인 제어는 간단.
■산업용 로보트 : 산업라인에 조립기기 조립, 검사, 운반, 용접, 주입등 바빠, 산업기기의 자동산업의 생산수준 향상은 간단, 간단 기업환경 등에 최적인 산업용 기업로보트.
■수치제어기기 : 고정밀의 Speed는 고 Servo Driver는 사용, 소형기, 고생산기, 정밀의 · 하중형기등, 세분화 발전기술 등에 최상의 활용 주력인 고성능 CNC 장치
■무인운반차 : 생산체제의 유연성에 따라 환경의 변형에 간편하게 조립도능, 발전기제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능에 생산라인의 무인화는 가능.
■자동창고 : 입고시 바코드 리딩 자동 분반·위치결정 → 입고 · 이동 · 출고 · 배고 · 이동 등 입고라인의 모든 일련의 흐름 · 능률 · 정확 · 속도에 대한 최고 효과 위한.

최첨단 기술의상징
금성
產電部門
●金星產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아니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럭키금성 본관빌딩
■공장자동화 기술문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74 (전화 : 3663-1 ■금성조명전자사업부 774-3763
■금성기전 전자사업부 774-3637 ■금성계전 전자사업부 774-3657~9
■금성기전 전자사업부 제주도지사 ■금성전자사업부 774-3657~9